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5월 7일)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부처님 가르침으로 세상에 평화를

영산재보존도량 태고종 서울 봉원사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전쟁 종식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봉행했다.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는 2600여 년 전 인도 영취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이다. 사진은 영가의 업장을 청정케 하는 관욕의식에서 바라춤을 추는 스님들의 모습. **글 · 사진=신중일 기자**

불교호스피스 확대 이끌 영적돌봄가協 출범

불교영적돌봄가협회 6월 4일 창립
협회장에 전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가을부터 기본과정 등 교육 나서
"전문 소양 갖춘 영적돌봄가 양성"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에 더해 영적돌봄의 제도화를 발표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영적돌봄가를 양성할 공식 기구가 출범했다.

불교영적돌봄가협회는 6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식을 개최하고, 병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역에서의 불교적 영적돌봄을 발전시키는 데 매진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 11월 병원포교와 환자 돌봄에 관심 있는 스님과 재가자들이 함께 결성한 불교영적돌봄가 단체를 전신으로 한다. 기쁨정사 주지인 지인 스님을 필두로 6명의 활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영적돌봄교육)센터가 개설되고, 2022년 4월 불교영적돌봄연구소가 탄생하며 기반을 다졌다. 올해 초부터는 본격적인 협회 창립을 논의한 끝에 지난달 전국비구니회 CPE센터명을 '불교영적돌봄연구소CPE센터'로 변경한 데 이어 이날 협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협회장은 직전 전국비구니회장이었던 본각 스님이 맡았다. 수석감사는 고림사 주지 성목 스님, 사무총장은 지인 스님, 수석자문위원은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이다. 협회 내에는 △기획조정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행정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병원전법단과 연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장 본각 스님은 창립식에서 "현대사회는 수많은 영적 어려움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로 내몰고 절망적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영적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영적돌봄가를 양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CPE기본과정과 영적돌봄교육과정을 오는 가을부터 운영한다. CPE기본과정은 불교계 첫 CPE슈퍼바이저인 지인 스님이 강사를 맡는다. 영적돌봄교육과정은 지인 스님을 비롯해 지륜·수근·성민 스님과 천성아·변순현 자문위원이 진행한다.

협회 창립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한국CPE협회장 정무근 신부, 권범선 동국대일산병원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다수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묘장 스님은 "협회가 창립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찾기 위해 매일 병동을 돌기도 하고, 개별적인 스님들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던 병원포교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CPE과정을 마련하기도 했다"며 "불교영적돌봄가협회가 성공적으로 창립하는 길에 도달했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광용 스님은 "불교영적돌봄가협회는 불교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매우 고귀하고 의미 있는 여정임이 분명하다"면서 "현대사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발을 뗀 불교영적돌봄가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내 불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창립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종교성을 이유로 제도권에서 인정받지 못한 영적돌봄이 이번 종합계획에서 주요 내용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영역에서 이웃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계가 협회 창립을 기점으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 세계유산 등재 '잰걸음'

10~16세기 조성 석불 등 산재
공간적 조성 다양성 매우 희귀
6월 20~21일엔 국제학술대회
9월 국가유산청 우선목록 신청

2017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종합학술용역을 진행해온 화순군은 올해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의 밑바탕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보편적 가치 규명에 나서고 있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10~16세기 말 조성된 다양한 석불과 석탑이 산등성이 곳곳에 산재돼 있다. 천개의 불상과 탑이 있었다는 운주사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불은 91구, 석탑은 21기다. 대표적 유물로는 석조불감(보물 제797호), 9층석탑(보물 제796호), 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 와불 등이다. 와형 석조여래불과 큰 바위 7개가 북두칠성처럼 놓여져 있는 형태의 칠성바위가 특징적이다. 칠성신앙은 도교에서 영향을 받은 별자리 신앙으로, 우리나라는 불교신앙으로 수용돼 사찰 안에 자리 잡았다. 이는 과거 불교, 밀교, 도교, 천문학 등 여러 종교간 교류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으로 이 같은 공간적 조성과 형태의 다양성, 조형성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내에 불상과 불탑의 석재를 채굴했던 채석장과 석재 운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도 매우 특이한 점이다.

화순군은 오는 9월 국가유산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록목록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종합학술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5월 31일 화순문화원에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운주사 석불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비롯해 보존관리 현황과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화순군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차후 세계유산 등재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군은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역사 문화적 가치는 물론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국내외 불교유산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나누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도 연다. 6월 20~21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운주사지 천불천탑의 역사적 배경과 유산적 가치(박경식 단국대 사학과 명예교수) △타흐트-이-바이 간다라 세계불교유산의 유산적 가치(Muhammad Tufail 홍콩이공대 조교수) △동아시아 불교유산 비교(이숙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태국 불교미술 조각의 특징(Amara Srisuchat) △운주 석탑의 유형과 가치(천득염 전남대 건축학부 명예교수) △운주사 석불의 조성과 가치(이경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운주사의 종교사상적 배경(정성권 단국대 교수) △운주사 무형유산의 가치 인식과 제고(한정훈 전남대 국문과 교수) △일본 세계불교유산과 동아시아 교류(Araki Jun 도쿄대 역사학부 인류학 박사) 등이 발제된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 창간 30주년
(사)다나 공동 후원 캠페인
소외계층 청소년 여성위생용품 나눔사업
소녀에게 응원을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342006 (사단법인 다나)
후원문의 | 010-5347-4178 (대표 탄경 스님)

국민 명상센터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청·장년 명상힐링캠프
간화선 선칠(禪七)수행
| 일 시 : 7월 13일~20일
| 장 소 :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참선지도자협회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참나를 찾아 떠나는 대자유의 명상"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WORLD MEDITATION VILLAGE

“상월 원각 대조사 가르침 새겨 정진하자”

천태종 6월 3일 단양 구인사서
상월 대조사 열반 50주기 법회
각 종단 수장 등 사부대중 운집
윤 대통령 “국민 위해 힘쓰겠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50주기 추모법회에 운집한 사부대중.

충북 단양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창건하고 한국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50주기를 맞아 가르침을 되새기고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법석이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6월 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열반 50주기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단 대덕스님들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스님,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신동욱·엄태영·임호선 국회의원,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등 1만5000여 명이 동참했다.

도용 종정예하의 헌향·헌다·헌화에 이어 원로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원로위원, 총무원장 덕수 스님·종의회의장 세운 스님·감사원장 진덕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와 부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등 회원 종단 스님, 종의회 의원·참의원·각 사찰 신도회장·산하단체장 등은 헌향·헌화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50주기를 추모했다.

이날 상월원각대조사의 육성 법문(1973년)을 들은 뒤 도용 종정예하는 대조사의 열반 50주기를 맞아 “소백산 연화성지 천태도량에 대조사님의 법향이 가득하니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크신 원력 법신으로 빛나는구나. ‘부처님은 오고 감이 끊어진 자리에서 중생을 위해 나투셨으니 찼다가 기우는 저 달과 같이 생사가 본래 공적하여 불생불멸이라.’ 전해주신 법의 등불 높이 받들어 거룩한 가르침 이 땅에 널리 펴서 불국정토 이룩하기를 서원하는 불자들이여. 정진하고 정진하여 일심청정을 이루어 국태민안과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며 보살의 행을 지극히 닦고 닦아 온 누리에 연꽃을 피워내기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를 열어주신 대조사님의 원력을 받들어 종단의 발전, 국가·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대승보살도를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며 “열반 50주기 기념대법회를 맞아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며 열심히 정진해 국가와 민족에 이익을 주는 불교를 만들어야 한다. 천태불자는 모든 국민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중앙신도회장은 봉행사를 통해 “대조사님께서는 한 송이 연꽃으로 오셔서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이 거룩한 법석에 동참한 인연으로 우주 법계의 많은 생명을 남김없이 해탈케 하기를 염원한다”고 기원했다.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각계각층의 추도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열반 50주기를 마음을 다해 추모드린다. 오늘은 상월원각대조사께서 사바세계의 인연을 뒤로 하고 청정한 열반에 들어 생과 사가 둘이 아님을 보여 주신 날”이라고 추도했다. 이어 “일생을 제도에 이바지하시며 수많은 중생을 따뜻하게 품어, 크신 원력으로 새 시대 새 불교 운동을 일으키셨다. 대조사께서는 한 종단의 스승을 넘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계신다. 저와 정부는 대조사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회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천태종 대덕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과 대조사님을 기리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발원한다”고 추도한 후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은 현대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국민의 화합과 인류 평화를 위한 밝은 이정표가 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현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 외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신동욱 국회의원 대독),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임호선·엄태영 국회의원이 추모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50주기를 추모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사진 오른쪽).

김제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임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경험 살려 역량 발휘를”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주지에 화평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산중총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금산사 주지 후보가 된 화평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산사에서도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며 “김제 불교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화평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애종심, 공심, 보살행을 평생 강조하셨다. 저도 애종심과 공심으로 소통하고 포교를 위한 보살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화평 스님은 또 종단 핵심 종책인 ‘천년을세우다’ 불사금 3000만 원을 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화평 스님은 월주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무우사, 심곡사, 서고사 주지를 지내고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우원식에 여야 협치·민생 안정 당부

진우 스님, 22대 국회 첫 본회의 앞서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의원에게 여야 협치와 민생 안정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6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예방을 받고 “국민의 삶과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잘 조율해서 선봉장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세계 10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국민 행복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실감해 국민이 안정되도록 해줘야 한다”며 “정치경력과 노하우가 있으시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역사에 남는 의장이 되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큰스님 말씀처럼 늘 갖고 있는 생각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의 가장 큰 무기가 돼야 한다는 신념도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잘 알고 있다. 들여다보면 민생대란 수준”이라며 “여야 간 이해의 차이는 있지만 민심을 잘 떠받들고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화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또 진우 스님이 정치인들에게 강조해온 선명상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저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우 스님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때 지혜가 나온다. 국민 스스로 멘탈을 잡도록 선명상 프로그램을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재무부장에 여학 스님…국장단 인사도

총무원 · 산하기관 교역직 임명
선임인 총무국장은 무일 스님
유산연구소 부소장 상원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상원 스님

조계종 총무원 새 재무부장에 불영사 주지를 역임한 여학 스님이 임명됐다. 더불어 총무원 국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과 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을 임명했다. 한동안 공석이던 재무부장에는 여학 스님이 임명됐다. 국장급 인사는 총무·기획·재무·문화·호법 등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변화를 줬다. 이에 따라 △총무국장 무일 스님 △기획국장 석두 스님 △재무국장 도민 스님 △문화국장 신해 스님 △호법국장 향림 스님 △조사국장 명우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 명법·덕제·덕유·증진 스님 △사업국장 선안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대온 스님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덕상 스님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허 스님 △연등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금오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상원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항상 화합을 염두에 두고 임명 받은 각자의 업무를 잘 파악해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무부장 여학 스님은 일운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했다. 불영사 천축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불영사 주지를 역임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상원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군사찰인 호국한송사, 충국성불사, 기룡호국사, 보라매법당 등의 주지를 지냈으며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이다. 윤호섭 기자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1.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조직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

2. 신심이 깊고 덕망이 높은 불자로서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위와 같은 인사를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자로 모십니다.

○ 자격 요건 :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
○ 제출 서류 : ① 이력서 1부(사진 첨부, 상벌사항 기재, 서명 날인 포함)
②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 중심, A4 용지 3매 이내)
③ 경영계획서 1부(A4 용지 10매 이내)
④ 불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계증/신도증/기타/단, 공식적인 추천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 기간 : 2024년 7월 29일(월) 09시 ~ 8월 9일(금) 17시까지
○ 제출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문의 전화 02-719-1855)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 면접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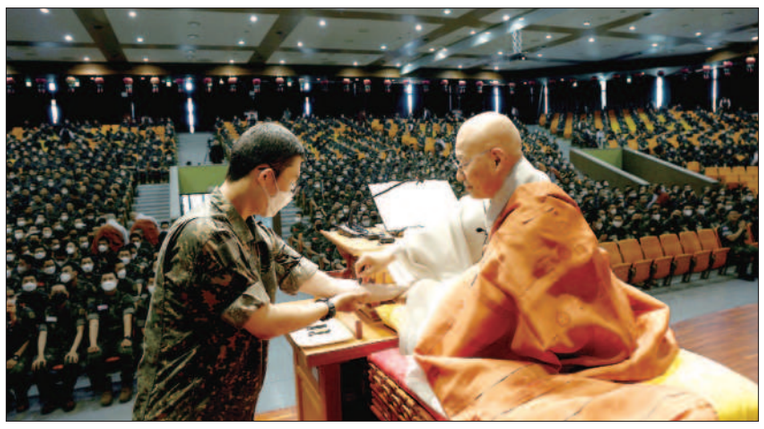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2000여 군장병, '불제자'로 거듭나다

진우 스님,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계사로
계율 중요성, 장병에게 전해
포교 후원금 5000만원 쾌척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서 장병들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지금 대덕 법사님을 청해 우바새 우바니계의 계사로 모시옵니다. 저희는 이제 대덕 법사님을 의지해 삼귀의 오계를 받아 참된 불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원하옵건대, 대덕 법사님께서는 청정한 계를 주시옵소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수계사스님을 청하는 2000여 장병의 '청사(請師)'가 울려 퍼졌다. 이날 2000여 훈련병들은 신실한 불제자로 거듭났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스님)는 6월 1일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계사로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수계법회에는 전계사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인례법사로 군종교구장 법원·총무부장 성화·사서실장 진경 스님 등이 참석해 청년불자 2000여 명의 탄생을 증명했다.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율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진우 스님은 "사람마다 있는 마음은 팔만 사천 가지 번뇌가 있고, 번뇌는 한량없는 업을 만들어 우리를 생사윤회의 고해 속에서 헤매게 한다"며 "무릇 계(戒)는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근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계를 설한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잘못을 멀리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면서 "부처님의 오계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오계는 우리 불자의 생활신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의 법문 후 수계 장병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지은 죄에 대해 참회했으며, 계사스님과 인례법사 등은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귀의와 선계상을 통해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 수계 장병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으로 살아갈 것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법상에서 대표 장병 10명에게 수계증과 합장주를 전달했으며, 불자 장병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도 쾌척했다. 이에 군장병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우 스님에게 케이크를 선물했다.


한국 선불교 체험을 위해 방한한 데이비슨칼리지 불교 교법팀 교법사와 수강생들이 예불을 함께하는 모습.

美 데이비슨 칼리지, 한국 선불교 체험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주관
범어사 · 골굴사 · 해인사 방문
108배 · 차담 · 선명상 등 경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박 7일간 미국 데이비슨 칼리지 불교 교법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불교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교법사 이반(Rev. Dr. Ivan Mayerhofer)과 종교학 교수 레이첼 팽(Ph.D. Rachel H. Pang), 불교학 수강생 9명 등 총 11명이 동참했다.

이반 교법사와 레이첼 교수는 학생들이 한국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했고, 그 결과 '한국 불교 순례 프로그램(Buddhist Pilgrimage to South Korea)'을 기획했다. 데이비슨 칼리지 개교 이래 불교 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들은 약 10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부산 범어사, 경주 골굴사, 합천 해인사에서 각 2박 3일간의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다. 범어사에서는 108배, 스님과의 차담, 선명상 등을 체험했고, 해광사·금강암·해동용궁사 순례와 범어사 말사 및 암자를 참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골굴사에서는 선무도를 익혔고, 해인사에서는 장경판전 순례와 인경 체험으로 한국불교를 배웠다.

레이첼 팽 교수는 "한국 사찰은 오랜 역사가 잘 보존돼 있고 멈춰있는 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불교가 있는 곳이다.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찰에서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고 한국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앞으로도 한국 불교문화 전승과 계승, 그리고 방한 외국인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문수 스님 발원한 평등세상 나아가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개운사서
문수스님 입적 14주기 추모다례


서울 개운사에서 봉행된 문수 스님 입적 14주기 추모재.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이 헌다하고 있다.

"문수 스님께서 육신을 버려가며 세상에 던진 화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참회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들의 힘을 모아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4대강 개발사업 중단과 뭇 생명의 평화를 염원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입적 14주기 추모 다례재가 5월 31일 서울 개운사에서 봉행됐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후원한 이번 다례재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종원 스님, 개운사 주지 보림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중앙승가대 총학생회 임원단 학인스님과 문수 스님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다례재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에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한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문수 스님은 늘 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중앙승가대와 종단 발전, 나아가 나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문수 스님의 자비 가득한 마음은 이 사회에 경책의 죽비와 같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두 하나 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문수 스님께서 간절히 발원했던 사회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에게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일깨워 주셨기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공덕을 다시 한 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일체중생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수 스님의 도반인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생전 중앙승가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성화 스님은 "5월 이맘때가 되면 30여 년 전 이곳 중앙승가대 안암동 학사에서 수학했던 그때가 생각난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문수 스님은 세상에 큰 화두를 남기고 떠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기후위기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고통받고 있다"며 "문수 스님의 깊은 뜻을 잘 새겨 다시금 환경보호와 이웃을 보듬는 데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대중은 스님을 기리는 천도의식인 종사영반이 진행되는 동안 차와 꽃을 올리며 스님의 유지를 되새기고,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수 스님은 1986년 합천 해인사에서 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20여 년간 수좌의 길을 걸었다. 2006~2007년 청도 대산사 주지 소임을 역임한 이후 군위 지보사에 머물면서 일종식하며 수행에만 매진했다.

문수 스님은 2010년 5월 31일 군위군 위천 제방에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지·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납 49세, 법납 25년으로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김내영 기자

'열암곡 마애불' 공모전, 작품 1천편 접수

소설부문 허영숙 씨 '꿈꾸는 정물' 대상 선정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향한 국민적 관심 고취를 위해 진행된 문학작품 공모전에 1천여 편의 작품이 접수돼 성황을 이뤘다. 수많은 작품 가운데 대상의 영예는 소설 '꿈꾸는 정물'을 쓴 허영숙 씨에게 돌아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미래본부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문학작품 공모전에 총 540명이 참여해 1015편의 작품이 접수됐다"며 "예심과 3차례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종정예하상) 1작품, 최우수상(총무원장상) 2작품, 우수상(국가유산청장상) 4작품, 장려상(문화부장상) 7작품, 입선 14작품(미래본부 사무총장상), 총 28작품이 선정됐다"고 6월 5일 밝혔다.

대상은 소설부문(성인) 허영숙 씨가 쓴 '꿈꾸는 정물'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시·시조부문(성인) 신춘희 씨의 '내 등의 부처'와 수필부문(청소년) 최보현 학생의 '만다라'다. 시상식은 6월 20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작품들이 좋은 소재로서 콘텐츠를 확장되고 불자들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했다. 윤호섭 기자

제50회 삼보여름불교대학
'불교의 세계관과 휴머니즘'

60년간 지성불교의 산실로 불교의 정법구현과 대중화를 선도해 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가 제50회 여름불교대학을 개설합니다.

일 시 | 불기2568년 7월 7일부터 8월 25일 총 8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 삼보정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08(서경대학교 정문 앞) TEL : 02-913-2859
(지하철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 마을버스 1164, 2115번 이용 꿈나라도서관 하차)
동참금 | 3만원 (2개월)

부설 | 삼보법회, 삼보여름불교대학, 삼보선원,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삼보법사회, 삼보장학회, 삼보연꽃어린이집, 수행도량 삼보정사

일 자	법 사		주 제
7월 7일	석연 정병조 교수	금강대학교 제4대 총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삼보사이버불교대학장	불살생과 비폭력
14일	준한 스님	홍대선원 주지	기후 위기의 세상 속 우리들의 수행
21일	혜융 스님	중앙승가대학 비구 수행관장	마음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센션티즘 (sentientism)
28일	법담 이필원 교수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부교수	인간의 경계 너머, 연기의 세계
8월 4일	고연 최종석 교수	금강대학교 명예교수	세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11일	성암 종범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제 4대 총장 삼보여름불교대학 학장	특 별 법 문
18일	법운 유정길 법사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포스트 휴먼시대의 불교적 실천
25일	정명 황순일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다툼과 분열을 대하는 불교인의 자세

불기 2568년 6월 2일
삼보여름불교대학 학장 성암 종범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 이사장 유 억 근

이젠 자동 타종 시대…'타종이' 아시나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군종교구, 6월 5일 '타종이' 공개
최원준 해군 대령 발명해 특허도
교구 귀속…편히 구매하도록 도와
법원 스님 불사에 관심 동참 당부

범종 인력 없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종을 울리는 타종 장치가 개발됐다. 독실한 불자인 발명자와 제작자는 특허까지 받은 타종 장치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귀속, 군불교 포교에 힘을 보태기로 해 훈훈함을 더한다.

조계종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6월 5일 서울 용산 호국 원광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성연결체를 이용한 자동 타종장치 '타종이'를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타종이' 발명자 최원준 해군 대령, 제작자 김상봉 케이제이 대표 등이 참석해 '타종이' 개발과정과 향후 보급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타종이'는 계룡대 호국사에서 매일 새벽 정진을 하고 있는 최원준 해군 대령이 개발한 특허품이다. 최원준 대령은 서울대에서 조선해양공학으로 석사를,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조선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다. 저출산 시대, 출가자 감소로 범종을 보유한 전국 사찰에서 종을 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한 최 대령은 신심깊은 불자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 불교 중흥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계룡대 호국사 불자들의 새벽 기도 정진을 수월하게 돕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2021년, 자동 타종 기계 개발에 나섰고 1년 반 만에 발명 성과를 냈다. 최 대령은 이후 조선 설비와 기계 구동장치 제작 전문 기업인 케이제이에게 제작을 의뢰, 4개월 만에 타종 장치를 현실에서 구현해냈다.

'타종이'는 범종을 치는 도구인 당목 아래에 기계를 설치하고 연결된 고무가 기계의 왕복 운동으로 타종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회전체와 연결된 봉의 가속운동으로 메커니즘이 구현됐다. 기계와 고무 연결은 언제든 탈부착 가능해 필요시 수동 타종도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대령은 자녀가 가지고 놀던 블록 장난감을 이용해 '타종이' 구동 과정을 연구했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회전운동에서 직선 가속운동으로의 변환하는 원리를 이용, 구동 메커니즘 및 타종 기계 제작 가능성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고, 2022년 특허청에 등록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보완을 거듭, 타종 강도와 데시벨 강약 조절도 가능하게 했다.


함안 보갑사에 설치된 '타종이'.

발명자 최원준 대령은 "오직 발원과 원력으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면서 "필요한 사찰에 보급돼 범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불국정토의 세상이 이뤄지길 기원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타종이'는 군법당인 계룡대 호국사와 영동 남성사, 동해 지상사, 함안 보갑사에 설치된 상태다. 계룡대 호국사에 2년 전 설치된 '타종이'는 현재까지 고장 한 번 없이 가동 중이다.

제작자 김상봉 케이제이 대표는 "'타종이'를 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범종의 큰 울림이 국민들에게 치유의 소리뿐 아니라 가슴마다 피어나는 희망의 소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특허권을 군종교구에 귀속, 필요한 모든 사찰이 편하게 구매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타종이' 불사에 동참하는 불자는 범종불사와 군포교에 모두 마음을 내는 것으로, 이중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라며 '타종이' 불사에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어린이들에 재미있는 불교 "우리가 전합니다"

불레협, 73회 여름지도자강습
레크리에이션 · 율동 등 교육
"포교 일선에서 적극 활용"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방금 외친 말이 무색하게 진행자가 "4명"을 외치자 함께하던 짝을 빠르게 손절(?)하고, 또 다른 짝의 손을 잡는다. 숫자에 맞춰 짝을 짓는 '우리는 한가족' 게임에서다. 우승을 위해 열심히 새로운 짝을 찾아가다 어느새 게임에 집중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척박한 포교 현장에서 어린이·청소년에게 불교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을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장스님, 불레협)는 6월 6일 서울 조계사 교육관 2층 강의실에서 '제73회 여름지도자강습회-마음愛 부처님'을 개최했다. 불레협은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매년 2회씩 강습회를 열고 있다. 이번 강습회에는 어린이·청소년 법회 지도자, 포교사, 지도법사, 템플스테이 담당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강습회 참가자들이 기차놀이를 하며 불교 레크레이션을 배우고 있다.

첫 번째는 강의는 '마음愛화합-레크리에이션 실내게임'. 강사로 나선 유상진 불레협 연구위원은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으로 기지개·안마 게임, 박수 게임, 가위바위보 게임을 소개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게임으로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기 위함이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리자 보다 활동적인 팀 게임으로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파트너를 찾는 게임, 기차놀이, 풍선 게임, 눈치 게임 후프 통과하기, 불풀공 농구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게임이 선보여졌다.

열심히 게임을 배운 강의 참가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활동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며, 전법 의지를 다졌다. 광주 무각사에서 초·중·고부 법회를 지도하는 이광룡 씨는 "선생님이 우선 행복해야, 학생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강의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고, 또 부처님 법에 스며들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화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보조하고 있는 김지원 씨도 "지인의 소개로 오늘 강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오늘 배운 게임들은 곧 있을 여름불교학교에서 아이들과 다 함께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동국대 WISE캠 불교대학 '부르나' 창립

6월 5일 정각원서 창립법회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부르나'가 창립됐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6월 5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교문화대학 166명의 학생은 청년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부르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르고, 지속적인 불법을 전파한다는 의미로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권태환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 '부르나' 회장은 "불교문화대학 불교동아리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이어나가는 청년불자로서 푸르른 모습을 지켜갈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불교 동아리를 지도할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위촉식도 진행됐다. 지도법사에는 유진 스님(불교문화대학 학장), 지도교수에는 불교문화대학 불교학부 혜명 스님, 김영진 교수, 석길암 교수, 명상심리학과 안양규 교수, 범우 스님이 위촉됐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 '해남 대흥사 순례길' 개발

총 4개 코스…왕복 2~3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최근 '해남 대흥사 호국과 다도의 길' 순례길을 개발·발표했다. '해남 대흥사 호국과 다도의 길'은 제22교구 본사이자 호국불교의 상징인 대흥사와 두륜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순례길이다.

코스는 △대흥사 쉼터에서 시작해 '봄이 오랫동안 머물렀다 간다'는 뜻의 장춘숲길을 걸을 수 있는 길(1코스) △서산대사의 발자취를 따라 대웅보전, 삼층석탑, 천불전, 호국대전, 성보박물관을 둘러보는 길(2코스) △국보 마애여래좌상의 숨결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북미륵암 길(3코스)△다도의 성지 일지암으로 가는 길(4코스) 등 4개로 구성됐다. 1코스는 5.1km, 2코스는 2km, 3코스와 4코스는 3km 구간으로 왕복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포교원에서 개발한 순례길 안내자료는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설법-문서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여름엔 서핑 템플…힙한 불교 즐기자"

낙산사 템플스테이 · 서피비치
업무협약…6월 10일부터 예약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연수원장 선일 스님)과 서피비치(대표 박준규)는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 여름시즌 서핑템플스테이를 개최키로 했다.

서핑템플스테이는 낙산사가 진행하는 2박 3일 체험형 템플스테이에 접목된 서핑 프로그램이다. 7월과 8월 총 12차에 걸쳐 진행된다. 서핑뿐 아니라 낙산사 경내 홍련암 앞에서 바다를 마주하고 진행하는 '파도명상',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한 '소리명상', 바다에서 진행하는 '모닝 요가', 낙산사 탐방을 통한 역사와 문화해설, 요가와 절을 접목한 '요가형 108배', 불교에 관해 묻는 '스님한테 물어봐-즉문즉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낙산사템플스테이 홈페이지(naksansa.templestay.com/)서 예약가능. 선착순 60명. 김내영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진행된 생명나눔 천도재는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특히 육군사관생도들도 동참, 나라를 지킨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웃·나라 위해 목숨 바친 의인 왕생극락을
〈義人〉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⑥

생명나눔천도재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회와 타인을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들의 왕생극락을 간절히 발원합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30회 생명나눔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는 장기기증자의 영가를 축원하는 자리이자, 순국선열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생도 6명이 동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5년부터 매년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생명나눔천도재는 사후시신과 장기기증 등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며 생을 마치고 떠나간 이들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을 기린다.

2017년부터는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공무 희생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특별히 날짜도 현충일로 바꿔 순국선열과 6·25전쟁 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로 활약했던 육군사관생도들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봉행하고 있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는 6·25전쟁 때 불암산에서 활약하던 육군사관생도들로 육군사관학교 1, 2기 생도 13명과 병사 등 20여 명이다. 이들은 불암산에서 유격대를 결성해 북한군에 끌려가던 마을 주민 100여 명의 목숨을 살린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도 함께 모시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서 천도재
생명보시 · 순국선열 영가 등 400위
육군사관생도들, 유격대 정신 기려
"자비나눔 실천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 천도재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군과 경찰 등 호국영령과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인 등 모두 400여 명의 영가를 모셨다.

이날 천도재는 시련과 대령, 법문, 상단불공, 영가천도 의식 등 3시간가량 진행됐다. 본격적인 천도재에 앞서 경기도 무형문화유산 살풀이 이수자이자 승무 전수자인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극락무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극락무는 긴 대나무에 흰 창호지 술을 양쪽 끝에 달아 슬픔과 한을 온몸으로 풀어내 잡귀의 근접을 막아 저승길을 닦아내는 춤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님들이 독송한 회심곡에 따라 동참자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 헌화·헌다를 하는 동안,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독송소리를 타고 불암사 경내를 장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법문에서 1993년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같이 나타난 기증자로부터 간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일어났던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히 소개했다. 이어 기증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해 천도재 동참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스님은 또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천도재에 함께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6명을 매우 반긴 김병주 국회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임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전투에 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구하고 작렬히 죽음을 맞은 이들의 뜻을 기리며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는 불암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극락무를 펼쳐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천도재에서는 호국영령과 장기기증자, 의인 등 모두 400여 명의 영가를 모셨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천도재에 동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뜻을 기렸다.

일면 대종사 현충일 천도재 법문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부운자체본무실(浮雲自體本無實), 생사거래역여연(生死去來亦如然), 독유일물상독로(獨有一物常獨露), 담연불수어생사(湛然不隨於生死)"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또 이 세상을 하직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고 반대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늘의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도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식과 형제 인연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면, 다음 세상도 인연법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윤회하는 과정에서 잠시 만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구름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나 떠나는 것, 구름이 있다가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용기와 기백이 있지만 70세, 80세가 되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업으로 인해 우리는 끝없이 윤회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 업을 멸하기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염원하고 천도를 합니다. 인연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함께 기원 올립시다. 그 역시 좋은 업을 쌓고 훗날 좋은 데로 가는 복을 짓는 것입니다.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 30년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가정의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30th Anniversary 1994-2024

정기후원신청 02-734-8059
후 원 계 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명상·사찰음식·클래식이 주는 평안

마하사, 6월 1일 명상음악회
연제구청 웰니스 사업 연계
15일엔 사찰음식 테라피 비롯
명상음악회 한 차례 더 열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최초 사찰 마하사가 개최한 '명상음악회 희로애락(喜怒哀樂)'에서 주지 정산 스님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5세기 아도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부산 최초의 사찰로 꼽히는 마하사가 명상과 사찰음식 테라피, 음악회를 엮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는 6월 1일 경내에서 '명상음악회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개최했다. 명상음악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모든 감정을 음악과 명상으로 풀어보는 자리로, 첼로와 바이올린, 피아노 등 관현악 악기로 구성된 클래식 공연이 진행됐다.

음악회는 기쁨, 분노, 사랑, 즐거움을 주제로 바흐 G선상의 아리아,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주제가, Fly me to the moon 등 익숙한 곡이 공연됐다. 연주는 김태윤 글로벌문화예술콘텐츠협회 대표, 이현우 바이올리니스트, 이주연 첼리스트가 함께했다. 부산 각지에서 방문한 시민들은 사찰 곳곳에 자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아 공연을 감상하며 '희로애락'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공연마다 태전 스님은 스스로 감정을 알아차리고 일상에서 힘든 감정도 수용하며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주지 정산 스님은 "이번 음악회는 명상으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리다. 특히 음악을 클래식으로 선정한 것은 종교인 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라며 "연제구 체험형 웰니스 관광 사업인 이번 마하위크가 3회를 맞았다. 더 많은 시민들이 온전히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와 연계해 진행하는 마하위크는 6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마음챙김 명상이 상시 운영되며, 종교나 철학 등 지식 위주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밖에 사찰음식 테라피와 명상음악회는 오는 6월 15일 마하사 경내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2024 마하 위크'는 휴식이 필요한 부산시민과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당일 '노쇼(no-show)' 방지를 위해 소정의 참가비(테라피 5000원/명상음악회 3000원)가 인당 발생하며, 참가자에게는 다과와 음료가 제공된다.

한편 마하사는 부산 최초의 사찰이자 국내 최초 나한도량으로, 임진왜란 당시 사찰 건물이 모두 전소됐으나 18~19세기 단계적으로 복원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부산 연제구청이 지정한 연제구 8경에 속하며 역사적 상징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불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을 위한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010-3155-1011

영축총림, '호국보훈의 달' 추모물결 만든다

통도사, 6월 15일 위령재 봉행
설법전서 법요식…추모음악회도
육군병원으로 쓰인 사찰 역사에
2022년 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


2022년 봉행된 제1회 호국영령 위령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5일 경내에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제3회 호국영령 위령재 및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 통도사는 지난 2022년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현충시설로 지정받아 이를 기념하고 위령재를 거행해 한국전쟁 중 산화한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호국영령 위령재는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 법요식으로 문을 연다. 오전 11시 대웅전 앞마당 무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자 영산 스님을 단장으로 한 어산단의 위령재가 이어진다. 추모음악회는 오후 1시 삼성반월교 옆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군악대의 공연으로 시작해 성악가 김재섭, 전통 음악의 요소를 팝과 혼합한 '조선팝'의 창시자 서도밴드가 출연한다.

통도사는 2019년 9월 26일 경내 용화전 미륵불의 복장물을 조사하던 가운데 '미륵불좌상조성연기문'을 발견했다. 이 연기문에는 "6·25 전쟁으로 군인들이 법당 등을 훼손시켜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그중 용화전의 훼손이 상당하여 1952년 '미륵불'을 다시 조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간 구전을 통해 통도사가 6·25 전쟁 당시 육군병원으로 쓰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왔지만 실질적인 근거가 없던 상황에서 발견된 연기문이다.

이와 함께 대광명전 내에서 치료받으며 머물렀던 군인들의 흔적(필적)이 발견되었고, 이 낙서에는 당시 전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림과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통도사 육군병원 분원에서 치료받은 상이군인들과 유가족들이 잇달아 증언을 보탰다.

이에 통도사는 2020년 1월 17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에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증언과 자료를 취합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증명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그해 12월 17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분원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받고, 2022년에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10월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1일 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 지정 통보(지정서 별첨)를 받았다.

통도사는 "1377년의 역사를 품은 신성한 종교시설이 군사시설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한국불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였을 때 당시 통도사가 국난 위기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면서 호국불교를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韓中日 삼국 소설 속 불교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대종사)이 6월 2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한·중·일 삼국의 소설에 나타난 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학술대회는 △불교철학의 문학적 형상화-김동리와 이청준을 중심으로(유창민/동의대) △'금병매' 속에 나타난 불교연구(이서현/한국해양대) △일본 근대 소설 속의 불교-단편소설의 귀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작품을 중심으로(이정희/위덕대)'가 발표됐다.

유창민 교수는 한국문학이 불교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는지 발표했다. 이어 김동리와 이청준의 소설을 통해 현대 소설이 불교철학을 수용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방법을 안내했다. 유 교수는 "김동리 소설에서 현실세계 좌절 이후 불교에의 귀의라는 서사적 흐름은 구원의 삶을 추구하는 김동리 문학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교수는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소설 '금병매' 속에도 불교적 요소와 불교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교수는 "불교적 색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아가 작품 속에 스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통해 불교의 세계관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경찰서 경승실, 탱화 점안법회

매월 한 차례 정기법회 봉행키로



부산 사상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성문 스님)이 5월 30일 경승실 법당에서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난해 12월 개원한 경승실 법당은 이번 탱화 점안으로 불사를 마무리하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정기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탱화 점안 증명은 옥천사 회주 청강 스님이 맡았다. 이 밖에 경승실장 성문 스님과 경승 법경 스님(광명사), 은적 스님(관음사), 향공 스님(견강암), 자륜 스님(낙은사), 탱화 불모 도안 스님 등 40여 대중이 함께했다.

경승실장 성문 스님은 "탱화 점안으로 법당 불사가 마무리됐다. 정기법회를 통해 경찰과 시민의 안정을 위한 기도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6회 생명나눔 부산 백일장 시상

중 · 고등부 산문 · 운문 나눠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6월 2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제16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200여 학생들이 참가한 백일장에서 대상은 고등부 산문 서민하(혜화여고2), 운문 권동훈(해동고2), 중등부 산문 정윤슬(해동중1), 운문 김준호(동해중3) 학생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생명나눔 부본부장 자인 스님, 운영이사 법경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정경연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처장, 차달숙 한국문학산문 총괄본부장, 박혜숙 부산문인협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자인 스님은 "백일장에 참가해 열정과 진심을 담아 글을 적고 훌륭한 작품을 남긴 학생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반야심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원영 스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출간 기념 북토크

6월 14일(금) 저녁 7시
우리 시대 가장 친절한 불교 멘토 원영 스님의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반야심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시 : 6월 14일(금) 19:00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
참가 신청 :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https://url.kr/l8co6w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문자 접수 : 010-5761-9417 (이름 및 참석 인원 필수)
문의 : 불광출판사 02-420-3200

출간 직후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반야심경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지음 | 304쪽 | 18,000원

"드디어 나왔다!"
『반야심경』이 궁금했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흥미진진한 『반야심경』 강의!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진우 스님 "한국불교 중흥에 힘 모아달라"

담양 용흥사 백운 대강백 4주기 추모 다례재서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행 · 포교에 적극 참여하면 세계 중심에 한국불교 우뚝"


6월 3일 전남 담양 용흥사에서 봉행된 백운당 지흥 대강백 4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대강백으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백운당 지흥 대강백(1934~2020)의 유훈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6월 3일 백운당 지흥 대강백 원적 4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은사이기도 한 백운당 지흥 대강백은 1944년 백양사 석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광주 서중과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범어사 동산 대종사의 상좌로 입실해 범어사 강원, 통도사 강원, 해인사 마산대학에서 수학했다. 이후 제방선원에서 참선 수행했으며, 동산 스님을 모시고 종단 정화 운동에 참여했다.

1971년부터 화엄사 강주, 범어사 강주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주력했고, 송광사 강원을 개원해 종단의 교육에 헌신했다. 또한 초의선사의 정통 다맥을 이어 서암선기, 쌍수일한, 응송영희, 백운지흥으로 이어지는 초의선사의 다법과 유품을 전수 받았다. 그 후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2020년 용흥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저서로는 한국불교사와 평양언기 선사의 일대기를 소설로 쓴 〈양치는 성자〉와 〈임제록 연의〉 〈진묵대사〉, 〈초의선사〉 〈동산대종사〉 〈완당 김정희〉 〈만암대종사〉 〈성월선사〉 〈혜암종정〉 〈오세동자〉 〈인곡대선사〉,〈부설거사〉 〈연선도인〉 등을 집필했다.

이날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오늘은 큰스님의 평소 덕망과 음덕을 추모하는 자리"라며 "오늘 대중의 원력으로 머무는 그 자리에서 평안하소서"라고 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추모 다례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국불교 중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은사스님의 4주기 다례재를 맞아 찾아오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우리 종단은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종단 안정이라는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주하지 않고 전 종도와 합심해 한국불교가 다시 한 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종단과 문도들이 수행과 포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불교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원로의원 성오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선암사 주지 대진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심우·오심·성행·삼조·설도·만당·우석·향문·허허·탄보 스님 등이 함께했다. 또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산하기관 스님들과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도 담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이 동참했다.

소림선종, 中소림사서 수계법회 봉행

5월 26일 금강유리계단서 전계대화상에 영신 대화상 종단 비구 10명 법명 받아


소림선종은 수계대표단을 구성, 중국 소림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종정 연화스님)은 5월 26일 중국 숭산 소림사 금강유리계단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전계대화상으로 소림사 방장 영신(永信) 스님이, 갈마아사리에 영복(永福) 스님, 교수아사리에 속발(续发) 스님 등 소림사 대덕스님들이 나섰다.

소림선종에서는 스님 10명과 재가불자 7명 등으로 수계대표단을 구성했으며, 이미 소림사에서 법맥을 받은 제자 종정 연화 스님 외에 혜담, 효진, 월암, 천상, 법지, 청해, 도암, 혜국, 혜광, 보광 스님 등이 이번에 계를 받았고, 동참한 재가불자들은 거사증을 받았다.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은 수계법회 전날인 5월 25일 소림사 초대소에 도착, 26일 소림사 입적 서류를 접수한 후 법의(가사, 장삼)를 받았으며, 5월 26일 오후 1시 30분 소림사 전통 수계계단인 금강유리계단에서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를 받았다.

소림사 방장 영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소림 종도가 되었으니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자주 왕래하여 소림 선법을 익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영신 스님은 '신동심부동(身動心不動)'을 강조하며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몸은 움직여도 불심의 마음은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은 수계법회 후 소림사 참배 후 소림사 연무장에서 무승들의 수행을 살펴봤다. 이어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은 소림사 방장 영신 스님을 예방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방장 영신 스님은 '불(佛)'과 '선(禪)' 휘호를 소림선종에 전달했다.

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은 "소림선종은 초조 달마대사께서 선풍을 일으킨 소림사 선풍은 이어가고 있다"며 "신기에 가까운 무술과 소림사 약방의 신묘한 영약, 소림사 선방의 700여 선승들의 모습을 보며 정진에 원력을 세우게 된다. 소림을 알면 수행자는 스스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법문했다.

한편,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은 수계법회 후 5월 26일 달마대사가 2년간 머문 웅이산 공상사를 참배했다. 공상사에서는 종정 연화 스님 사형제인 주지 연자(延慈) 스님 등이 나와 대표단을 맞이했다. 공상사는 소림선종 수계대표단을 위해 진사(닭의 피가 섞인 모래)로 빚어진 달마대사좌상 1점 등을 선물했다. 이어 5월 27일 백마사를 참배하였으며, 28일 용문석굴, 29일 황하 등을 둘러보고 귀국길에 올랐다.

노덕현 기자

순창 구암사, 근대 대강백 선양 비석 제막

석전 · 운기 스님 비석 제막식 백파선사 172주기 추모다례도


한국불교의 대강백 석전당 영호 대종사 불망 유허비와 운기 대강백비 제막식이 순천 구암사에서 열렸다.

순창 구암사(주지 지공 스님)가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석전당 영호대종사 불망 유허비와 운기 대강백비 제막식을 열었다.

구암사는 5월 31일 화엄종주 백파긍선 대율사 172주기 다례재와 석전당 영호대종사 불망유허비, 운기대강백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또 운기대강백의 행장기를 담은 '독보건곤' 봉정식도 진행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 운기문도 문장 혜산 스님,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대우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 부산 금강사 회주 혜성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전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총무원 사서국장 구산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정읍 운주사 주지 성락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선운사 부주지 운천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 24교구 본말사 대중스님들이 참석했다.

제막식 후에 전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성원당 운기대강백의 행장를 기록한 '독보건곤'을 봉정했다.

선운사 원로 대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의 큰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등불이자, 역사인 석전 스님과 그 뒤를 이은 운기대강백의 비를 제막하게 됐다"며 "오늘은 석전 스님과 운기 스님의 큰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 동참한 대중스님은 백파 스님을 비롯한 조사스님들의 부도전에 헌다하며 가르침과 유지를 이어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그동안 여러 어른스님들에게 석전 스님과 운기 스님을 비롯한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해 들으며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다"며 "어른스님들의 큰 뜻을 아직 이루지 못해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도 "백파긍선 대종장의 다례재를 맞아 법맥과 강맥, 율맥을 이어온 석전 스님과 운기 스님의 추모비 제막과 운기대강백의 행장기 '독보건곤'의 증보판 봉정식을 갖게 돼 더없이 영광스럽다"며 "구암사는 한국불교의 법맥과 강맥이 흐르는 여러 큰스님들의 염원과 학문적 열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을 가진 석전당 영호대종사비는 전 통도사 강주 혜남 스님이 비문을 쓰고 부산 금강사 회주 혜성 스님이 근서했다. 운기대강백비는 문손 재선 스님이 비문을 쓰고 전종주 선생이 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불교 중흥 경허 선사 유훈 되새기자"

수덕사, 경허 선사 열반 112주년 추모 다례재



근대 선불교의 중흥을 이끈 선지식 경허 성우 선사의 유훈을 되새기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5월 31일 경내 대웅전에서 '경허 선사 열반 11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덕숭총림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전 총무원장 송원 설정 대종사를 비롯해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김종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설정 대종사는 "경허 선사는 수없는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불교의 선맥을 다시 되살려 중흥시켰다"며 "선사의 발자취와 유훈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허 선사는 1894년 태어나 9살에 청계사로 출가했다. 동학사에서 스승 만화 보선을 이어 강사로 활약했으며 견성 후에는 무애행으로 세상 속에 녹아들었다. 만공 월면, 수월 음관, 혜월 혜명 이른바 '3월(三月)'로 불리는 걸출한 제자들을 비롯해 혜봉, 침운, 한암, 제산 등을 길러내어 오늘날 한국불교 승단의 기틀을 마련했다. 1912년 세랍 64세, 법랍 56세로 입적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임원대회 봉행

6월 1일 칠곡 각황사서



(사)세계불교교황청(청장 석능인 스님)이 6월 1일 칠곡 각황사에서 임원대회를 봉행했다.〈사진〉

세계불교교황청장 석능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불교교황청은 많은 종단의 통합을 위해 5년 전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며 "미얀마, 태국, 네팔 등 외국 종단을 비롯해 28개 종단, 800여 스님들이 가입돼 있다"고 소개했다.

보궁사 주지 법성 스님은 세계불교 각 승단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를 담아 교황청기를 석능인 스님에게 봉헌했다. 이어 대법황 향덕 스님은 도일문도회장 대봉 스님, 능인문도회장 인연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능인 스님은 수불사 무초심 법사, 보궁사 법성 스님, 금강사 증명 스님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밖에 대표이사 대원행, 상임이사 원산 스님 등 이사와 대의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이어졌다.

대법황 향덕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종교의 초종파를 초월해 힘든 이웃을 살피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한다"며 "세계일화(世界一花)의 큰 뜻을 피워내어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고, 세계가 하나 되는 진정한 불교문화가 정착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산 부석사 '관음상' 환수 운동에 감사

관계자 초청해 사찰음식 대접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 스님)는 6월 4일 경내 앞마당에서 사찰음식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과 지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찰음식을 대접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주지 원우 스님은 "그동안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수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석사와 지역사회가 더욱 가까워지고, 마음에 고향 같은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용주 신도회장은 "그동안 힘써주신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의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꾸준히 환지본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부석사 조실), 유희열 조계종 포교사단 홍보전문위원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각원사 불교대학 제22기 졸업식 개최

5월 26일 93명 졸업생 배출



교육 포교 도량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대종사)는 5월 26일 불교대학 제22기 졸업식 및 경해학당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각원사는 불교대학 졸업생 93명과 경해학당 수료생 184명을 배출했다. 특히 졸업생 가운데에는 이재관 국회의원과 문진석 국회의원의 부인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법인 대종사는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쉬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하라"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대원 대종사는 "불교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이 한국불교를 발전시키는 포교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졸업생과 수료생은 불교대학과 경해학당에 약 11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中, 달라이라마 입적 후 매뉴얼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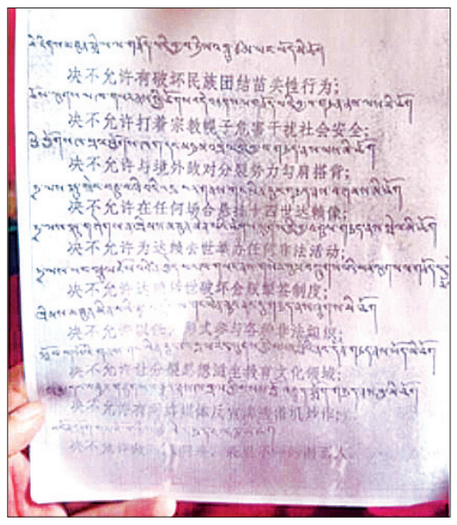
간쑤성 사원 스님에게 교육 나서
민족 단결 해 끼치는 행위 금지
사진 게시 · 추모 기도법회 막기도
"종교 자유 침해 국제 제재 필요"

박영빈 객원기자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서북부 간쑤성(甘肅省)에 위치한 티베트 불교 사원들에 배포한 종교교육 훈련 매뉴얼에 달라이라마의 입적 후 사원들과 스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명시하고 교육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티베트하우스재팬'을 통한 티베트 내부 소식통과 망명 중인 전 티베트인 다큐멘터리 감독인 골록 직메의 폭로로 밝혀졌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와 인접한 중국 간쑤성,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에는 티베트족이 다수 거주하는 10개의 티베트족 자치주가 있다. 이중 매뉴얼이 배포된 것으로 전한 간쑤성 간난(甘南) 티베트족 자치주에는 약 41만5000명의 티베트인이 살고 있으며 약 200개소의 크고 작은 티베트 불교 사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내부 소식통은 중국정부가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정치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고 전했다.



중국당국이 최근 티베트 자치구 사원에 배포한 달라이라마 입적 후의 메뉴얼. 사진출처=RFA

특히 스님들과 일반 티베트인들에게는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업, 단체는 물론 해외에 망명 중인 일반 티베트 난민과 접촉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소식통은 매뉴얼의 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며 최근 배포된 사항에 대해 "스님들에게 10가지 조항으로 된 매뉴얼이 배포됐다. 매뉴얼은 티베트어와 중국어로 각각 쓰였으며 '민족의 단결에 해를 끼치는 그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강한 어조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는 "14대 달라이라마의 서거 후 사진을 게시하거나, 추모를 위한 기도법회 등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인도의 망명정부가 15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를 찾는 것에 협조하는 것과 중국 정부가 15대 달라이라마를 찾는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RFA의 인터뷰에 응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것이 티베트인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대처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 티베트 지원 네트워크의 연구·모니터링 부장인 부충 체링은 "중국 정부의 행동은 티베트 불교도를 종교 교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그 정치적 목표에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너리 투르켈 위원장은 "간쑤성에서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도들의 신행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 중국 정부의 행동은 달라이라마 환생 과정에 간섭을 시도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투르켈 위원장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 당국자에게 국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뇨엔, 세계 평화 위한 등롱 띄우기 봉행

5월 28일 하와이 화재 희생자 등 극락왕생 기원

세계 각지의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자들의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가 눈길을 끈다.

종교법인 신뇨엔(眞如苑, 원주 이토 신소)은 5월 28일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하와이 호놀룰루시 일대에서 '25주년 하와이 등롱 띄우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미국 현충일은 미국 전몰장병을 비롯하여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신뇨엔은 1999년부터 호놀룰루시에 위치한 신뇨엔 하와이 정사와 아라모아나 해변 등에서 등롱 띄우기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신뇨엔 불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 등 5만여 명이 함께했으며, 참가자들은 2023년 8월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로 숨진 100여 희생자들을 비롯한 재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토 신소 신뇨엔 원주는 "희망과 광명의 빛이 담긴 등롱을 통해 모든 돌아가신 이들의 극락왕생과 세계평화를 기원한다"며 "모든 생명의 행복과 융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신뇨엔은 우란분절을 비롯한 불교 주요 명절마다 전쟁과 재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일본 야마나시현 진징사와 가와구치 호수에서도 등롱 띄우기 행사를 봉행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전세계 각 정사를 통하여 생중계됐다.

신뇨엔 측은 "올해의 등롱 띄우기는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하와이 희망의 상징으로 불리는 외양 선박 호틀레어호와 협동해 집행했다"며 이는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달라이라마 다녀간 인도 불교 성지, 사실상 방치

11세기 조성 화강암 석조불
대승불교 포교 위해서 조성

인도 남서부 케랄라 불교 유적이 감독 기관 관리 미흡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3일 인도 매체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인도 고대 불교 유적지 방치 소식을 전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위치한 연안 도시 알라푸자에서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카루마디 마을에 위치한 불교 유적 '카루마디쿠탄'은 케랄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와의 연결고리 중 하나이다. '카루마디에서 온 소년'이란 뜻을 가진 카루마디쿠탄은 11세기에 조성된 높이 0.9m의 검은 화강암 석조불로 왼쪽 어깨부터 무릎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14년 라자세크란 필라이가 인도 고고학부에 개인 소장 중이던 카루마디쿠탄의 왼쪽 팔 일부를 기증했으며 현재 크리슈나푸람 궁전에 보관하고 있다.

해당 유적은 인도 불교사에 중요한 유적이다. 관광 명소로도 지정되었으나 안내소, 화장실, 가로등, 식수대 등 기본 시설 없이 사실상 방치 상태로 놓여있다. 2014년 인도 고고학국은 12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카루마디쿠탄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 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참배를 온 순례자를 위한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치된 카루마디쿠탄 석조불. 사진출처=위키미디어

케랄라 불교 평의회 니슈 보드는 "카루마디쿠탄 유적은 순례자를 맞이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자가 없다. 또한 가로등이 없어 유적지와 유적지 진입로가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경비원 한 명이 유적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적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유적지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도 생겼다"며 "알라푸자 행정과 인도 관광 부서는 카루마디쿠탄 유적지를 보존 및 홍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케랄라 불교 평의회는 2014년부터 매년 카루마디쿠탄 유적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주최하고 있다. 매년 1000여 명의 내·외국인 불자가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다.

카루마디쿠탄 석조불은 1930년 고치 항구 개발 중 항구 기술자 로버트 브리스토우 경에 의해 발견되어 유적지를 조성했다. 1965년 5월 5일 달라이라마가 카루마디에 방문해 카루마디쿠탄 석조불이 케랄라에 불교 전파를 위해 조성됐음을 확인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태국 불교에 화합 강조

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100여 명이 5월 27일 바티칸 교황 관저 사도궁 클레멘스 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와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종교 간 대화와 소통,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자의 종교적 전통을 따르며 절망한 인류에게 한 줄기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접견을 마친 태국 불교 대표단은 로마에서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산타 마리아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불교 대표단이 바티칸 사도궁 클레멘스 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출처=카톨릭 리뷰

日, 쿠카이 대사 탄생 기념전에 뜨거운 반응

탄생 1250주년 기념으로
전시품 80% 중요문화재

고대 일본불교와 문화사에 큰 영향을 미친 헤이안 시대의 스님, 쿠카이(空海, 774~835)의 탄생 1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렸다.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특별전 'KŪKAI: 밀교의 뿌리와 만다라의 세계'는 일본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시회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일본의 '미술전 네비', '마이니치 신문' 등의 현지언론들이 연일 특별전에 대해 보도했다.

774년 일본의 사누키(현 카가와현)에서 태어난 쿠카이 대사는 15세에 불교에 귀의, 31세에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고 그해 당나라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스승인 혜과(惠果) 화상과 운명적인 만남을 거쳐 단 3개월 만에 진언밀교의 모든 가르침을 전수 받았다. 쿠카이 대사는 귀국 후, 밀교에 의한 호국안민을 목표로 조정과 민중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일본 진언종 개조가 된 쿠카이 대사는 진언종 가르침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저술을 남기고 교육, 문화, 건축, 토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으로 일본 고대사에 큰 획을 남겼다.



오지여래와 양계만다라가 전시된 전시회장 전경.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쿠카이 대사 탄생 1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총 5구역으로 나뉜다. 이번 전시회의 핵심이라 불리는 4구역은 '진고지(神護寺)와 토지(東寺)'라는 제목으로, 쿠카이 대사가 일본으로 귀국한 후의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쿠카이 대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고 전하는 만다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다카오 양계만다라(高雄兩界曼荼羅)'가 6년간의 수리를 마치고 최초로 대중에 공개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식물서 느끼는 생명성을 사유하다

정윤영 작가, 'Beyond Summer'
6월 13일~7월 4일, 히든엠갤러리
식물 · 신체 이미지 토대로 형상
생육 연상 이미지 신작 20여 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작품 앞에 선 정윤영 작가.


뿌리를 위한 노래, 100×80.3cm, 2024.

동양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현대미술에 접목해 독특한 회화 형식 작품을 발표해온 정윤영 작가가 전시회 'Beyond Summer'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식물의 생육 과정을 연상시키는 관능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신작 회화 20여 점이 공개된다. 한여름 식물의 생장을 반복하는 모습에 착안, 생명성에 대한 사유를 시각화한 작품들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은 한 해 중 봄과 가을 사이 위치한 무더운 계절을 의미하지만 정윤영 작가는 전시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여름을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윤영 작가는 "여름이 생명의 계절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지만, 생장이 있다면 죽음도 함께이며 생성과 소멸이라는 관계가 보여준다"면서 "역설적 생동감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동국대 미술학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정윤영 작가는 배채법을 통해 비단의 겹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회화 작업을 해왔다. 한국 전통의 회화 기법이 갖는 유려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회화의 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딪침으로 인한 새로운 기운이 약동하는 평면 회화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그는 "작품의 내용은 자못 심오한 주제인 인간의 고통, 신체의 감각과 기억으로부터 유래했다"면서 "지난 삶에서 마주한 어려움들은 강렬한 생과 죽음에 관한 모순적 감각을 느끼도록 했고 결국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은 고통의 기억에서 비롯되며 생기 있는 색채와 형태가 고통의 흔적과 공존하는 미묘한 미감을 발견하게 했다"고 말했다.

진정한 삶의 형태에 대해 "그저 잘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 가면서도 번번이 좌절되고 어긋나고 틈이 생기고 충돌하는 모험으로부터 살아 있는 것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되물은 그는 "불완전한 미지의 삶 속에서 뭔가를 내 나름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느끼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진 못한다. 바로 그 경험에서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알려진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쉼 없는 욕망이 부지불식간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로는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지만 무척이나 질긴 이중적 특성을 지닌 푸르른 초록빛의 식물들. 싱그러운 여름이 보여주는 약동하는 '너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번 전시는 여름의 초입 6월 13일~7월 4일 서울 히든엠갤러리에서 관객들과 소통할 준비를 마쳤다.

동국대에서 불교미술 전공으로 학사를, 국민대에서 회화전공으로 석박사를 한 정윤영 작가는 2013년부터 그룹전과 개인전을 꾸준히 열고 있다.

"무산 스님 상생·화합 정신, 예술·사회서 발현"

5월 31일, 제1회 무산대상 시상
문태준 · 박찬욱 · 수녀회 수상
상금 총 3억원…부도 상패 눈길



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5월 31일 개최한 제1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문태준 시인, 박찬욱 영화감독, 예수의 소화 수녀회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수행자이자 시조시인 무산 오현 스님(1932~2018)의 예술혼과 화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무산문화대상 첫 수상자로 문태준 시인,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화 수녀회가 선정됐다.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3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문학과 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 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마련된 무산문화대상은 각 분야에서 5명씩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쳤다. 수상자는 문학, 예술, 사회문화 분야에서 각 1명씩 선정됐으며 각 1억원 총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과 무산 오현 스님의 부도탑을 축소해 제작된 상패가 수여됐다. 상패에는 정호승 시인이 친필로 작성한 각 수상자의 공적이 새겨졌으며 봉정암 진신사리탑 모양을 본떠 만든 순금탑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또 무산 오현 스님이 매직펜으로 그려 남긴 색색깔 사람들이 어깨동무한 모습의 그림을 새겨넣었어 눈길을 끌었다.

문학 부문 수상자 문태준 시인은 "올해는 등단 30년이 되는 해로, 상을 받아 더욱 뜻 깊다"면서 "시인으로서 앞으로 가야할 길을 가늠하고 다른데 눈을 두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제 몫의 일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술 부문 수상자 박찬욱 감독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불교계 큰 어른의 이름을 가진 상을 받을만한 인물인지 돌아보게 됐다"면서 "인간에 대한 연민과 고통, 비극에 대한 관심을 집요하고 깊이있게 파들어가는 작품을 앞으로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문화 부문 예수의 소화 수녀회는 "종교를 초월한 시상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스님의 고귀한 뜻이 늘 선양되길 기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산문화대상은 수상 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 짓지 않고 전 세계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신달자 심사위원장은 "인간의 삶에 활력과 감동을 주는 이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감받는 인물을 선정, 상이 갖는 의미를 널리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학硏 '불교 의례' 주제 학술회

6월 21~22일, 가평 백련사서

불교학연구회(회장 남수영)가 2024 하계워크숍 및 학술콜로키움을 연다.

6월 21~22일 가평 백련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콜로키움은 불교 의례 문헌 및 의례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여러 불교 의례 문헌 및 불교 의례의 성립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킴으로써 그 존재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청환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학술콜로키움은 △영산재, 수륙재의 성립(강현찬/ 동국대) △진언집, 작법귀감의 성립(연산 스님/ 동국대) △종교와 의례(류제동/ 서강대)가 발제된다. 이어 김원명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체토론이 진행된다.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의 환영사와 정승석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장, 불교의례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축사도 준비됐다.

모든 의례에는 성립 배경이 있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불교 의례 및 의례 문헌은 남아 있으면서도 그 성립 배경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립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힘들어지고, 그 존재의미도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남수영 회장은 "존재의미가 약화돼 의례 및 문헌이 사라지게 되면 대중들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진다"면서 "의례 및 문헌이 사라지게 되면 대중들의 신행생활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불교 의례 및 의례 문헌의 성립 배경을 이해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학술콜로키움의 의미를 전했다. 031-585-3855

임은호 기자

불교평론 여름호…음식 관한 불교 가르침

김희옥 전 총장 회고담
'님의 침묵' 다시 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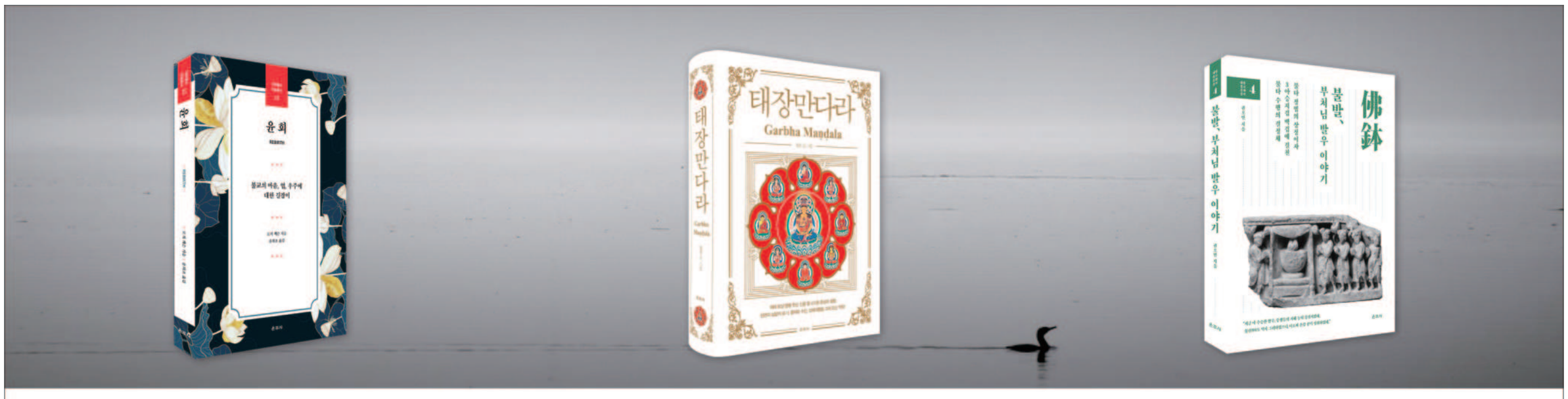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2024년 여름호(통권 98호)를 발간했다. 2024년 여름호 특집의 주제는 '음식에 관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기고문 △율장에 나타난 음식에 관한 가르침(한수진) △공양 의례에 담긴 음식의 의미(민순의) △발우공양에 담긴 뜻(구미래) △남방 상좌부 불교 음식문화의 특징(보하 스님) △한국 사찰음식의 영양학적 고찰(이재심)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과제(법송 스님) 등을 통해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한국의 사찰음식을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법송 스님의 '사찰음식의 세계화와 세계화의 과제'에서는 사찰음식이 한국불교가 세계인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불자로서 공양할 때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사찰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논단에서는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의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가 독자를 찾아간다.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두 바퀴로 움직이는 수레라고 파악하며 지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비의 실천윤리가 바로 인류 갈등의 해결 덕목이라고 말한다. 방영준 명예교수는 한국불교의 복지적 역할 증대와 함께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하화중생 상구보리로 변하고 있을 만큼 현대 사회에서 자비행이 전법의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일본 불자들의 주체적 인식과 활동을 소개한 기타지마 기신 스님의 글도 눈여겨볼 만하다. 각계 명사들의 신행 생활과 불교관을 살펴보는 '나의 삶 나의 불교'는 평생동안 나름의 선 수행 일과를 지키며 공직에 헌신해 온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의 회고담을 실었다. 검사, 법무부 차관, 동국대 총장, 한국농구협회 총재 등을 지내는 동안에도 부처님 가르침이 체화(體化)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올곧은 신행 자세는 많은 불자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은호 기자



'윤회는 실재하는가, 방편인가?'
윤회
불교에서 윤회에 관해 다룬 최초의 포괄적인 안내서이자, 윤회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룬 최초의 이론적 연구서이다.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신국판/무선/408쪽/값 25,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컬러/688쪽/값 100,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5~6/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6	윤회(대원불교학술총서15)불교의마음업우주에대한길잡이	로저 잭슨	운주사
2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문법해설을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7	영화스님의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3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8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진짜나를찾아라(법정스님미공개강연록)맑고향기롭게30주년기념	법정	샘터
5	불발부처님발우이야기(대원불교문화총서4)	권오민	운주사	10	신심명강설(총무원장진우스님의)	진우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삶이 수행이고, 생활이 참선이다



선명상 마음의 평화
진우 스님 등 7인 강설
조계종출판사
1만원

선지식 7인에게 배우는 선명상
조계사 출가열반절 법문들 모아
선명상 필요성, 방법론 등 담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출가열반정진 주간 특별법회에서 선명상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3월 17~24일에는 특별한 강의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이 불기2568(2024)년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을 맞아 두 불교명절을 잇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특별정진주간으로 정하고,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선명상 특별법문과 수행정진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선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을 주제로 열린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은유와 마음연구소장 명법 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금강 스님 △제따와나선원장 일묵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 등 선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진력해온 7명의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4년 출가열반재일 특별정진주간에 진행된 법회에서 7명의 선지식들은 '삶이 수행이고 생활이 참선이다'라는 주제로 선명상에 대해 강설했다. 일반 대중에게는 언뜻 어렵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선(禪)명상이란 무엇인지, 왜 지금 우리에게 선명상이 꼭 필요한지, 선명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 대중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열띤 배움터였다.

조계종출판사가 발간한 〈선명상 마음의 평화〉는 7명 스님들이 강설한 귀한 법문 내용을 다듬어 누구나 선명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엮어냈다.

이 책의 첫째 질문은 '선명상을 왜 하는가'이다. 이에 앞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선(禪)과 명상을 묶어 '선명상'이라고 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에서는 명상이 일종의 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존 카밧진, 조셉 골드스타인 등 유명 명상가들이 유행에 앞장서고 있고 오프라 윈프리,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세계적 명사들이 명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명상'은 서양에서 유래한 것이지 불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우 스님은 명상이 바로 선 자체라고 강설한다. 그래서 현대의 용어로 '선명상'을 제시한 것이다. 명상이란 한국불교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선명상을 어떻게 세계화시킬 수 있는지 화두를 제시한다.

"서양에서 유행하는 명상이 우리 고유의 불교 명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선(禪)을 앞에 붙여 선명상(禪冥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상 자체가 선입니다. 명상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전통 불교가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라거나 다른 종파 수행법을 왜곡시켜 수용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우 스님의 '선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 중

또한, 진우 스님은 일상에서 선명상을 실천하면서 개인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쾌하게 증명하며, 한국불교의 선명상은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고 최상승의 가치가 있음을 설파한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선명상의 시작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독서를 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말을 할 때도 모든 순간순간 명상의 순간이며 명상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서양인들도 불교의 선명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다니 좋은 가보다 하고 가져오는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고 육바라밀행을 하며 해오던 것들입니다."

–진우 스님의 '선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 중

원효 대사가 '생사고'라 했듯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다. 마음을 고요히 해서 궁극적으로 평안해지는 것. 불교의 목적이자 우리가 선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선명상을 하면 이로운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탐구하게 하며 실제로 따라해보는 과정까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항상 나 아닌 누군가에게 답을 찾고, 밖을 향해 질문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신선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곧 '명상'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7명의 스승들은 선명상과 우리의 일상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알려주며, 일어나 걷고 밥 먹고 일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설파한다. 생각을 고요히 하면 마음이 잠잠해지고 '나'를 중심으로 불끈불끈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 다툼 등 복잡한 생각들을 알아차리게 된다. 올바른 알아차림만으로도 고통은 사라진다.

"객진번뇌(客塵煩惱)는 우연히 밖으로부터 들어온 먼지라는 뜻으로,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는 본래부터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 청정한 마음을 더럽힌다는 의미로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이 객진번뇌를 없애면 바로 알게 되겠죠. 객진번뇌를 없애려면 먼저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앉기가 쉽지 않아요.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좌선이 아니에요.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다 쉬어야 앉아 있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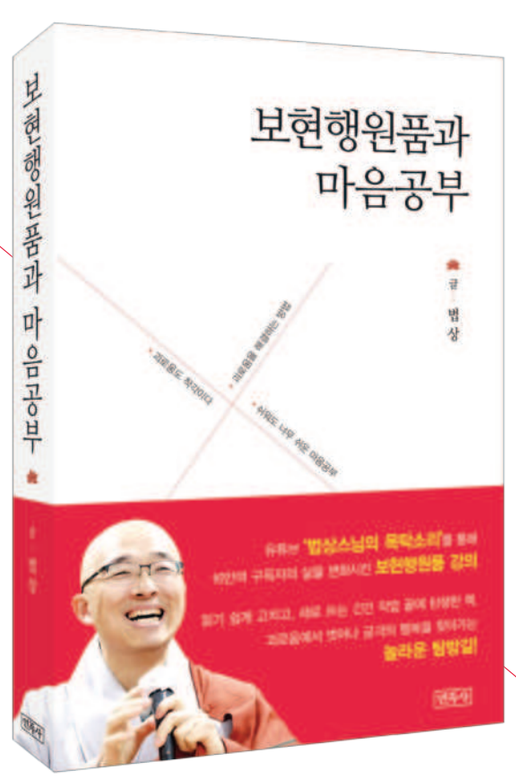
– 금강 스님의 '참선 수행, 참사람의 향기' 중

이렇듯 선명상은 자기를 치유하는 힘을 가졌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명상의 긍정적 효과가 많지만 스스로 체험해보고 자기 상태를 점검하기를 권한다. 스승들은 선명상에 좋고 나쁨의 분별이 없다고 가르친다. 다만 '그렇구나' 알아차릴 뿐이다. 오직 그뿐이다.

"우리는 보통 수행은 저 멀리 있고 참선은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고 바라봅니다. 선반 위에 있는 수행, 선반 위에 있는 참선을 우리들 삶 속으로 끄집어내려 우리 삶 그대로가 수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월암 스님의 '삶이 수행이고 생활이 참선이다' 중

"불교 수행의 목적이 놓아버리는 것, 렛잇고하는 것, 방하착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의 대상은 갈애와 집착입니다. 갈애와 집착을 놓는 무기가 바로 지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일묵 스님의 '마음을 길들여 삼매에 들다' 중



억지로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행복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법상 스님의 말씀을 통해
저절로 공명하고, 감동하면서 체화될 것이다.

『화엄경』「보현행원품」은 생활 속에서
마음공부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경전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매우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이토록 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법상 스님의 머리말–



•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
• 불변증을 통한 마음공부 •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 글 법상 | 432쪽 | 23,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전등사서’에 담긴 金言서 길을 찾다

〈傳燈史書〉



전등수필2
월암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월암 스님 ‘전등수필’ 2번째 이야기
전등록 등 글귀 엄선해 수필로 묶어
단순 명쾌한 문체, 죽비로서 다가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저자 **불이 월암 스님**은… 1973년 경주 중생사에서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중국과 한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벽송사와 기기암 선원장 소임을 지냈다. 지금은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不二禪會)’를 이끌고 있다.저서로는 〈간화정로〉〈돈오선〉〈친절한 간화선〉〈선원청규(주편)〉〈좌선요결〉〈니 혼자 부처 되면 뭐하노〉〈생각 이전 자리에 앉아라〉 등이 있다.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에서 정진하며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불이선회(不二禪會)’를 이끄는 불이 월암 스님은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잇고 있는 대표 수좌 중 한명이다. 월암 스님이 〈전등수필〉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다.

책 제목 〈전등수필〉에서 ‘전등’은 선사들의 법어와 선문답, 전법 내력 등을 모아 놓은 책인 ‘전등사서(傳燈史書)’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전등수필〉은 월암 스님이 〈전등록〉과 〈선문염송〉을 열람하며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글귀를 엄선해 수필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전등사서’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 삶에 이정표이자 거울이 될 만한 이야기를 골라,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 담박한 해설과 법문을 더한 〈전등수필〉은 지난해 1권이 출간돼 많은 이들의 가슴에 선풍(禪風)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책은 쉽지만 가볍지 않다. ‘전등사서’ 속에 담긴 깨달음과 가르침은 결코 시대 지난 ‘옛이야기’가 아니다.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통해 나를 성찰하고 인생의 여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체득할 수 있으며, 먹고사는 일에 쫓겨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에 대한 정견(正見)을 갖추고 해탈에 이르기를 바라는 불교 수행자부터 실천 가능한 삶의 지침을 찾으려는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등사서’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권에서 ‘오직 모를 뿐’ ‘조고각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같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구절들을 소개했다면, 이번 2권에서는 부처님과 옛 선사들의 가르침에 한걸음 더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내용은 깊어졌지만 간결하고 담박한 문체로 풀어낸 1권의 재미와 감동만큼은 고스란히 이어진다.

선 수행자로서 오랜 세월 한국과 중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행해 온 월암 스님은 〈전등수필〉을 통해 간결하지만 예리하고 명쾌한 직관으로 우리 시대에 일침을 놓는다. 사유가 부족한 시대, 외로움과 불안함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등수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나아가 깨어 있고 열려 있는 삶을 통해 공감·공명·공존의 불이(不二)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선(禪)적 해답을 제시한다.

〈전등수필2〉로 독자들을 찾아 온 월암 스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부한다. 부디 밖에서 찾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깨달으라고.

눈이 천 개인 관자재보살은
등불을 빌리지 않는다.
또한 눈이 없는 사람도
등불을 빌리지 않는다.
온몸이 눈이기 때문이다.
온몸 그대로 법신이요,
온 마음 그대로 비로자나(광명)이다.
부디 밖에서 찾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깨달으소서.

“만사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
수경 스님 지음
엘도브/ 1만7000원

오체투지 수경 스님이 전하는
따뜻한 위안과 성찰의 메시지

우리에게는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와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한 오체투지로 잘 알려진 수경 스님. 스님은 길바닥을 법당 삼아 생명과 평화의 길을 온몸으로 설했던 환경보살이었다. 하지만 수경 스님은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한 오체투지 이후 대외 활동을 일체 중단했다. 그나마 최근 들어 〈불교평론〉에 앞으로 불교환경운동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기고글을 발표하는 등 조용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경 스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발표한 저서 〈기도〉는 당신이 한주로 있는 (사)세상과함께 회원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세상과함께는 환경과 생태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봉사 단체다.

수경 스님은 세상과함께 회원들이 늘 고맙고 자랑스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은 이들에게 공양하기 위해 대내용으로 작은 책을 구상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몇몇 사람들이 세상과함께라는 단체의 취지에 비추어 봐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스님을 설득했다. 수경 스님은 망설이다가 “이런 얘기가 세상에 무슨 소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정히 생각이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했다. 그렇게 〈기도〉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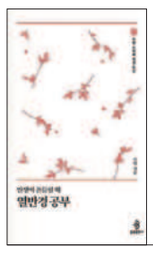
〈기도〉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기도하는 법을 일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스님의 체험을 통해 이야기한다. 그야말로 수경 스님의 기도 이야기다. 강하게 주장하지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공감된다. 체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의 힘이다.

수경 스님이 이 책에서 말하는 기도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삶과 기도, 삶과 수행이 따로따로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상을 벗어나 따로 구해야 할 도가 없다’는 조사선(祖師禪)의 도리와도 통한다.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수경 스님이 출가 초기 은사스님을 모시고 살 때부터, 화계사 주지,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둘째 부분은 화계사 주지 소임을 살 때 신도들과 기도하면서 송독한 기도문이다. 화계사라는 특정 사찰과 시점에 구속되지 않는 보편성을 띤 기도문이므로 독자들이 처한 저마다 업의 문제를 감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부분은 오체투지를 할 때의 심경을 밝힌 글이다. 이 글을 읽어 보면 수경 스님의 오체투지가 단순히 환경운동의 수단이 아니라 성찰과 참회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신중일 기자

인생 흔들린다면 ‘열반경’ 공부를



인생이 흔들릴 때 열반경 공부
자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2000원

불교에서는 무지(無智), 즉 무명(無明)의 상태를 번민(煩悶)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그래서인지 삶의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알고 하는 일보다 모르고 하는 일이 더 위험하다고 가르친다.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르지 못한 길을 가더라도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앎을 위한 공부는 인생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의 기본 바탕이 되어 준다.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은 흔들리는 인생의 훌륭한 버팀목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불교경전’의 인문학적 공부를 제안한다. 옛 성인들의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몸과 마음에 아로새기는 경전 공부의 힘은 흔한 힐링이나 위로의 말보다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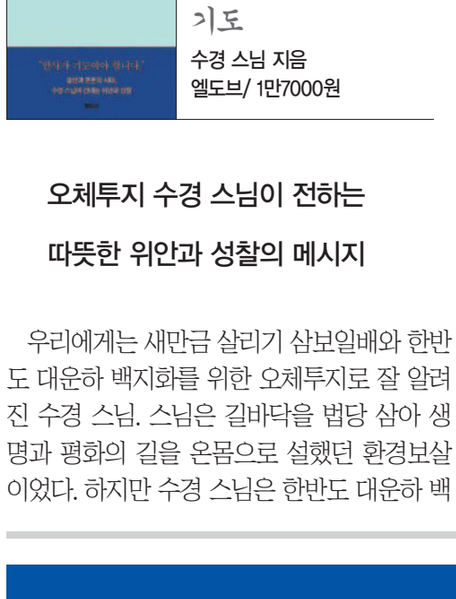
이 책은 ‘자현 스님의 경전 특강’, 그 첫 번째 책으로 붓다가 마지막 순간에 전한 지혜의 경전인 〈열반경〉에 대해 다룬다. 국내에서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만큼 주목받는 경전은 아니지만, 자주 들어본 경전이기도 하다.

저자는 완전한 깨달음이자 불교 수행자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 열반의 역사를 되짚어간다.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열반을 둘러싼 교리 발달사의 정리나 다름없다. 인도불교는 왜 열반에 주목했는지, 붓다를 완성하는 열반의 세 가지 관점은 물론, 붓다 사후에 이루어지는 종교화 과정과 그에 따른 문화 양상, 대승불교의 탄생과 흥기 속에서 변모·발전해 가는 사상의 면모까지 열반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열반경〉의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 저자에 따르면 〈열반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완전한 이상의 경지, 그리고 우리에게 내재한 불성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경전이다. 고로 〈열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불성(佛性)사상’이다. 불성이란 곧 ‘붓다의 종자’라는 의미로, 모두가 노력하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보편성과 평등을 역설한다. 이는 〈열반경〉의 핵심 구절인 ‘일체중생 실유불성’으로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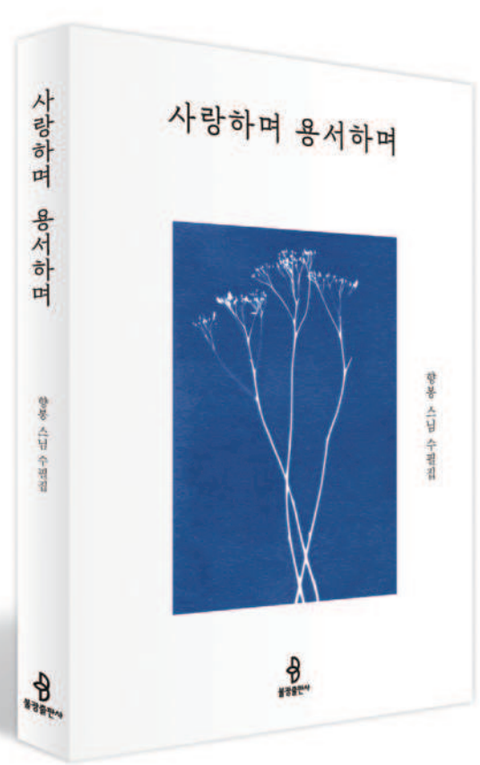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과연 무엇이 특별한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 향봉 스님의
가슴 시리도록 처절하고 아름다운 진솔함이다!



1979년 초판 출간 이후
60만 독자를 울린 우리 시대의 고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읽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강제 소환한 바로 그 책,
1991년 증보판 이후 33년 만에 복간판으로 재탄생하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향봉 스님 수필집

향봉 지음 | 264쪽 | 17,000원

향봉 스님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으로 15년의 치열한 구도행을 떠났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사자암에 머무르며, 머리와 수염이 허연 미륵산의 한가로운 노승으로서 할 일 없이 평화와 자유 누리며 살고 있다. 2023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펴내며, 오래도록 그리웠던 스님의 글맛을 절절하게 펼쳐놓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선문화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

“선불교는 생활선…하루 10분 참구해보길”

지상백고좌 취재를 갈 때마다 필자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선재동자의 심정이 된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을 참례하고 법을 여쭤볼 생각에 절로 가슴이 설렌다. 이번에 필자가 참례한 선지식은 선문화수좌복지회 이사장인 의정(義正) 스님이다.

태고 보우 국사가 주석했던 도량이어서인지 경기도 양평 상원사에 닿자마자 필자는 태고 보우 국사가 현릉의 청으로 지은 ‘달마(達磨)’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푸른 눈의 스승이 오기 전에도 사람마다 의기가 하늘을 찔렀고 외짝 신 들고 서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사람마다 두 눈썹이 모두 완전했거니 무슨 일로 그렇게 가고 오고 했던가? 냉정히 생각하고 한 번 웃기 위해서였네.’

서옹 스님이 편액을 쓰고 송담 스님이 주련을 쓴 용문선원(龍門禪院)을 지나치면서 필자는 냉정히 생각한 뒤 한 번 웃을 수 있는 그 소식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했다. 의정 스님은 이 시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송담 스님에게서 ‘판치생모(板齒生毛)’를 화두로 받고서 인천 용화사, 봉암사 선원 등 제방선원 70안거를 성만한 대표적인 선승이다.

한 수좌가 찾아와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고 묻자 조주 선사가 대답한 것이 바로 ‘판치생모’다. ‘판치생모’는 앞니에 터럭이 났다는 의미이니 현실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인사를 드리자 의정 스님은 “무엇을 취재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그저 선재동자의 심정으로 선지식을 찾아뵙는 것”이라는 필자의 대답에 의정 스님은 자신이 발심출가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의정 스님은… 남양주 봉선사의 중흥조인 운경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전국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법을 구하다가 인천 용화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친견한 뒤 법제자가 되었다. 송담 스님으로부터 ‘판치생모’ 화두를 받고서 용화사, 극락암, 송광사, 불국사, 운문암, 봉암사, 수도암 등 전국의 선원에서 70안거를 성만했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이사장으로서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으로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조계종 수행지침서 〈간화선〉 편찬위원과 〈선원청규〉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스님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무전 여행을 떠났다. 보름간 이어진 여행 내내 스님의 뇌리 속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고생 끝에 목포 앞바다에 당도한 스님은 인류 4대 성인의 사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4대 성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후 스님은 부처,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의 사상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읽은 것이 〈불교성전〉과 〈불교학개론〉 등 불교서적이었다.

“제가 인류 4대성인의 사상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세속적 욕망인 권세와 부귀와 명성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교 서적을 탐독하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세속적 욕망을 버릴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불교 서적을 읽으면서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발심을 했던 것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되는 형국이었다. 삶에 대해 의심했던 까닭에 스님은 출가의 발심을 낼 수 있었다.

당시 경기도 의정부에서 살고 있던 스님은 의정부포교당 주지인 운경 스님을 찾아갔다. 운경 스님과의 법연으로 말미암아 스님은 남양주 봉선사로 출가할 수 있었다.

“제가 ‘속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찰로 출가하고 싶다’고 했더니 은사스님께서 ‘봉선사에는 고승인 운허 스님이 계시니 너를 잘 지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가한 뒤 스님은 봉선사 조실 운허 스님에게 법을 구했다. 운허 스님은 사교입선(捨敎入禪)할 것을 권했다. 무작정 문자 밖의 깨달음을 구할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도할 경전부터 배우라는 충고였다. 운허 스님의 지시에 따라 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수료한 뒤 성철 스님, 월산 스님, 서옹 스님, 향곡 스님 등 당시 최고의 선지식들을 참례했다. 그러던 중 송담 스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는 순간 스님은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인연을 만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송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판치생모’를 화두로 받은 스님은 백척간두(百尺竿頭) 진일보(進一步)의 정신으로 용맹정진했다. 체중이 60kg에서 40kg으로 줄어들어서 병원을 찾으니 의사는 “장기 전체에 염증이 퍼졌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스님은 상기병(上氣病)에 걸려서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야 했다.

서구 물질문명 대안은 ‘간화선’

미국 등서 유행하는 명상들은
오직 定만 추구…매우 위험해
계정혜 닦아야 ‘열반’에 이르러

누구든 無心할 수 있다면 正覺
마음 속 망상 없는 게 곧 무심
간화선, 망상 없애 무심되는 길

‘내세에 다른 몸으로 정진해야겠다’고 결심할 즈음 송담 스님이 법제자의 구명(求命)에 나섰다. 송담 스님이 소개한 민간요법으로 3개월 동안 치료한 끝에 스님은 간신히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스님이 목숨 걸고 했다는 화두선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간화선이 다른 수행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간화선 수행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부터 설명했다.

“달마 대사에서 육조 혜능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으로 인해 중국에 조사선 수행이 유행하게 됩니다. 조사선이 유행하면서부터 중국의 총림은 농경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도 계율에 어긋납니다. 농사를 짓느라 농기구로 땅을 파헤칠 경우 미물(微物)을 살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재세 당시 승가 공동체는 탁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회에서는 어떠한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수행만 하는 것을 무위도식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 지붕만 있는 정사(精舍)에서 수행을 했던 남방의 승가 공동체와 달리 사계(四季)의 절기가 있는 중국의 승가 공동체는 사벽(四壁)과 난방시설을 갖춘 요사(寮舍)가 필요했습니다. 궁리 끝에 중국의 승가 공동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차법(開遮法)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범개차(持犯開遮)는 ‘작은 계를 범함으로써 큰 계를 지키는 법’이자 ‘계를 열고 닫는 법’입니다. 총림의 승가 공동체가 논밭을 경작하다 보니 청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장청규입니다. 당시 총림의 대중은 낮에는 6시간씩 노동을 하고, 오후 4시부터 좌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주자와어묵동정’은 앉아서도 서서도 걸으면서도 누워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의정 스님은 “간화선의 모태인 조사선은 동선(動禪) 위주의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육조 혜능 선사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기만 하는 것을 좌착(坐着)이라고 경계했다.

“간화선 전통을 수립한 대혜 종고 스님은 묵조선의 병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묵조선은 묵묵히 앉아서 본래 청정한 자성(自性)을 관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두를 놓지 않고 수행하는 간화선과 달리 수마(睡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선(坐禪)과 동선(動禪)의 균형을 맞추고 나서야 저는 상기병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간화선은 사마타의 정신력과 위빠사나의 지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수행입니다.”

의정 스님은 좌선과 동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용문선원 납자들에게는 인근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깨달음의 목적은 중생구제임을 잊지 말라는 ‘보청법(普請法)’인 것이다.

13면에 계속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지상백고좌

선문화수좌복지회 이사장 의정 스님

“청규정신 복원해야 불교 발전 가능”

12면에 이어

“현대사회에 간화선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는 필자의 질문에 의정 스님은 “서구 문명의 대안이 간화선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향후 인류를 이끌어갈 제4의 물결이 명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계(戒), 정(定), 혜(慧) 3학입니다. 계는 바른 도덕이고, 정은 바른 수행이고, 혜는 바른 지혜입니다. 계와 정을 닦을 때만이 혜가 생기는 것인데, 서구국가에서는 오직 정만 하고 있습니다. 심신(心身)을 치유하고자 선정만 닦는 것이지요.”

의정 스님은 서구 국가의 명상수행이 ‘외도선’이라고 정의했다. 중국의 규봉 종밀 선사는 선수행을 5단계로 나눴다. ‘외도선(外道禪)’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닦는 수행이고, ‘범부선(凡夫禪)’은 인과(因果)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시비의 분별을 지닌 채 닦는 수행이고, ‘소승선(小乘禪)’은 자신은 공하지만 법은 실재한다는 생각에 닦는 수행이고, ‘대승선(大乘禪)’은 자신과 법이 모두 공하다는 생각에 닦는 수행이고, ‘최상승선(最上乘禪)’은 자신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므로 애초 번뇌가 없다는 생각에 닦는 수행이다. ‘최상승선’을 수행할 때만이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의정 스님은 이어서 “〈부처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책을 출간한 다원주의 신학자인 폴 니터(Paul F. Knitter)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로부터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라 ‘연꽃 치유자’라는 법명과 함께 수계도 받은 폴 니터는 오랫동안 선(禪) 수행을 해왔다.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렸던 1960년대 초반에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 세계 2000여 가톨릭 주교들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불교 명상교사인 캐티 코넬과 결혼한 덕분에 그는 불교라는 안경을 통해 새로운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폴 니터는 불교와 기독교를 동시에 믿고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불교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은 병원은 물론이고 실리콘밸리 등 회사에도 명상소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 스님은 “서구 문명이 종언을 고하고 나면 선 수행이 인류문명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양이 인류문명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환경피해는 극심해졌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만능주의는 팽배해졌습니다. 서양의 사상은 이원론에 기초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아가서는 자연을 대상화 내지는 도구화함으로써 인류의 위기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원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선불교의 일원론입니다. 간화선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년 전 독일의 한 신부가 간화선을 공부하기 위해서 용문선원을 찾았다고 한다. 3일 동안

중국불교서 시작된 선농일치 풍조
자연스럽게 선원청규들이 강조돼
깨달음 통한 중생구제 ‘보청법’ 중시
청규정신 복원해 청정승가 구현을

의정 스님과 대화를 나눈 독일 신부는 “독일의 신부들도 밤에는 명상을 한다”고 말했다.

의정 스님에 따르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여러 난관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난관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을 뜬 채로 화두를 들어야 한다. 두 번째 난관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럴수록 화두에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 난관은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다가 의심과 의심하는 자신이 하나가 되는 순간 불현듯 화두가 풀리게 된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허 스님은 3개월 만에 화두를 풀었는데, 잠을 피하기 위해서 칼을 목 밑에 세워두고 정진했습니다.”

의정 스님은 “선불교 수행은 생활선이어서 앉아서도, 서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어디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잠들기 전 5분,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화두를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혜가 스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자 달마대사는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혜가 스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실, 편안하다는 생각도 불편하다는 생각도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무심(無心)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망상이 없는 게 바로 무심입니다. 간화선이 바로 망상을 없애서 무심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한 수좌가 마조 스님에게 찾아가 법을 물었습니다. 마조 스님은 주장자로 마당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원 안으로 들어가도 때리고 안 들어가도 때린다. 일러봐라.’ 수좌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조 스님의 가르침은 출구와 입구를 동시에 막아버림으로써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는 활구(活句)입니다. 간화선의 해답은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송담 스님이 전한 달마도에 대해 의정 스님이 설명하고 있다. 송담 스님은 의정 스님에게 ‘판치생모’라는 화두를 내린 바 있다.

의정 스님은 송담 스님으로부터 배운 공안(公案)의 타파법을 설명했다.

“송담 스님은 수행자는 마땅히 대의단(大疑團)이 독로(獨露)하도록 정진을 해서 공안을 타파(打破)함으로써 자기의 면목을 바로 보고, 불조(佛祖)의 면목을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정진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믿을 수 있는 바른 스승의 지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안은 분별심(分別心)이나 사량심(思量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타파(打破)할 수가 없습니다.”

전강 스님은 “어떻게 하면 그 바른 스승을 간택(揀擇)할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떠한 공안(公案)을 깨달아서 어느 선지식에게 인가(印可)를 받았는지 알면 된다”고 대답했다.

달마 대사의 〈혈맥론(血脈論)〉에는 ‘불급심사(不急尋師) 공과일생(空過一生) 무사자오자(無師自悟者) 만중희유(萬中希有)’이라는 구절이 있다. ‘급히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게 된다.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만 명 중 한 사람도 있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삿된 스승에게서 배우면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도 삿된 소견에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 바른 깨달음은 바른 스승의 지도하에서만 이뤄지는 것이다.

의정 스님은 종단의 발전 방안으로 청규정신의 복원을 꼽았다.

“2010년에 수좌 대표들이 모여서 현대사회에 맞는 청규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수좌 대표들은 적어도 하루 2시간은 보청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 보청에는 포교, 복지, 저작(著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현재 승가 공동체가 이판과 사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수행을 하지 않다 보니 사판승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총림 청규 상 이판과 사판의 역할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청규정신을 복원해 청정승가를 구현한다면 종단이 신도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의정 스님은 현재 재단법인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수좌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 설립된 단체이다.

의정 스님은 전국선원수좌회를 대표해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문경 봉암사에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주도해왔다. 2018년 봉암사 조실 적명 스님과 의정 스님이 첫 삽을 뜬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8만4000여㎡(2만5410평) 부지 위에 명상홀, 리조트형 명상숙소, 개인 수행처, 무문관 등 1만1000㎡(약 3360평)의 시설이 건립돼 300여 명이 동시에 숙식하며 수련할 수 있다. 국제 공모로 당선된 토마스 한라한 미국 플랫대 건축학과 교수가 설계한 건축물은 단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 운영에 대해 의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간화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선원수좌회가 합심한다면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세계인의 명상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스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상원사를 빠져나오다가 소요(逍遙)하듯 천천히 포행을 하는 수좌스님들을 보았다. 동선을 하고 있는 수좌스님들을 보려니 오현 스님의 ‘면벽의 달마’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우러러 일방(一榜)이라면 해 하나 달 하나를 갈대 한 잎 타고 도강(渡江)한 또 하나의 집념 그도 그 갈대가 되어 바람결에 흔들리고.’

용문선원의 산길에는 달마 대사가 서역에서 가져온 한 물건이 무엇인지 궁구(窮究)한 끝에 바람의 일방에 활연대오(豁然大悟)한 수목들이 녹음(綠陰)의 이파리들을 흔들면서 서로 염화시중의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응오 / 작가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⑫ 두 번의 기적 열암곡 석불좌상과 마애불상 (上)

▶한줄 요약
2005년 경주남산연구소 회원에게 불두가 발견돼 복원된 열암곡 석불좌상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일신라 후기 불상으로 화려한 광배와 웅장한 모습이 돋보이는 불상이다.



40m 아래서 불두 찾아 기적적 복원 이루다

열암곡 석불좌상은 개인적으로 화려한 광배와 웅장한 모습을 간직한 삼릉계, 미륵곡 불상과 함께 경주 남산을 대표하는 3대 석조여래좌상으로 뽑는다. 그런데 왜 열암곡 불상만 석불좌상일까? 명칭이 다양해서 헷갈린다. 열암곡은 예전에는 거의 찾는 사람도 없고 숲이 우거진 곳이었다. 남산 동남쪽 끝에 치우쳐 있으며, 그쪽으로는 포장된 도로가 없어 서남산 도로를 따라 '새갓골 주차장'으로 가야 한다. '새갓골'을 '새갓곡'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네비게에션에는 꼭 '새갓골 주차장'이라고 해야 찾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열암곡 주차장'도 영원히 찾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차장에서 열암곡 석불좌상까지 지도상 직선거리는 709m가 나오는데 걸어서 오르면 여유롭게 1시간 정도 걸리는 오르막길이다. 첫걸음이면 쉬엄쉬엄 갈 생각으로 느긋하게 오른다면 무리 없는 참배 길이 될 것이다.

열암곡은 남산 남쪽 고위봉에서 흘러나온 가장 큰 계곡인 백운계의 한 지류이다. 현재 새갓골과 열암곡을 혼용해서 부르고 있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 힌트가 하나 보였다. 2003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 정밀학술조사 보고서'에 보면 백운계에 '새갓곡'이 있다고 나와 있다. 열암곡이란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갓 사이의 골짜기라는 뜻의 새갓곡이 과거에는 '열암곡(列巖谷)'이라고 불렸다는 설명이 있을 뿐이다.

2003년은 파괴된 열암곡 석불좌상이 복원되기 전이었고 열암곡 마애불상은 존재를 알지 못하던 시기였다. 또한 보고서에는 새갓골 제1, 2, 3 사지로 표현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도 한자인 곡과 한글인 골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열암곡은 전문 연구자나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이 아니면 접근도 힘든 곳이었다. 지금처럼 주차장과 진입로가 만들어지기 전이다. 2005년 이곳에 열암곡 석불좌상의 불두가 발견되어 복원사업이 시작되고 이어 열암곡 마애불상이 발견되고, 언론사 지면에 누군가에 의해 열암곡으로 일반화되면서 열암곡의 명칭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갓골을 사용하며 한글의 이름을 지키려는 누군가 있었기에 주차장 이름은 새갓골 주차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남산의 지명과 불교 유적의 이름에는 새갓골과 열암곡의 혼용처럼 혼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 빠른 시기에 하나의 공식 이름으로 확정되었으면 좋겠다.

명칭에 관한 아쉬움 하나만 더 말해야겠다. 일반적으로 선을 공부하면 선종의 스님이며 경전을 공부하면 교종의 스님이다. 선종의 스님을 선사라 하며 입적(사망)을 하면 부도를 만들어 세운다. 예전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부관장의 소임을 살던 시절에 부도탑을 승탑이라고 공식화했다는 문서를 보았다. '왜?'라는 심정이었다.

2005년 남산연구소가 불두 발견
석불 목 부분과 깨진 틈이 일치해
복원해보니 근엄한 위용 돋보여

불교학을 조금만 안다면 깨달은 선사는 부처님과 동급의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부처를 뜻하는 부도의 명칭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박사 연구 논문 중 중심 자료가 남북국 통일신라시대 선사의 비문이었다. 선사의 부도를 세울 때는 일대기를 적어 놓은 비문도 함께 세운다. 산청 단속사에 있는 신행(神行, 704~779)의 비문에는 '입적 후 다비를 하고 이후 부도를 세워 사리를 보존했다'라는 글이 나온다. 곡성 태안사에 있는 적인혜철(寂忍惠哲, 785~861)의 비문에도 '돌을 세워 부도를 만들었다'라는 글이 있다. 그 외 통일신라시대 선사의 비문에는 부도란 명칭이 없다면 '돌탑을 세웠다'라는 부도에 관한 설명의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교종 스님들은 부도 탑과 비문을 세우지 않았다. 부도 탑과 비문을 세우는 것은 선종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부도 탑은 교종과 선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승탑이라니? 승탑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한 모든 스님들의 탑이란 뜻이다. 교종의 스님이 입적하고 언제 부도를 세웠던가? 이것은 잘못된 명칭이다. 다만 조선 후기가 되면 교종은 사라지고 선종 단일교단만 남는다. 이 시기 스님들은 모두 선사였기에 부도를 세울 수 있었다. 교종의 스님까지 포함한 명칭인 승탑은 오류인 것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화유산 명칭의 통일이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



2005년 불두가 발견돼 복원된 열암곡 석불좌상.



열암곡 석불좌상을 친견하는 불자들.

이러한 새갓골(열암곡) 계곡에는 2005년 10월 23일 경주남산연구소의 임희숙 회원이 불두를 기적적으로 발견하면서 복원된 열암곡 석불좌상이 있다. 열암곡 석불좌상은 파괴돼 불두는 사라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약 40m 아래 계곡에서 불두를 발견한 것이다.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부러움과 감사함 때문이다.

기존 경주남산의 소개 글이나 책자는 남산을 등산하는 코스의 소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불교 유물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 대다수다. 그 외 남산의 불교 유적에 관한 책자들은 불교문화재의 관점에서 찍은 예술적 사진 작품 위주의 책자다. 그런데 '경주남산연구소'에서 만든 책자는 내용도 충실하고 사진 또한 멋스럽고 훌륭했다. 이러한 책자를 만든 연구소장의 부인이 열암곡 석불좌상의 불두를 찾은 임희숙 회원이다. 나는 남산의 불국토를 참배할 때마다 잃어버린 불두를 찾는 꿈을 꾸는데, 그는 이런 꿈을 이뤘으니 부럽고도 부럽다.

발견한 불두와 불상의 결실 부분을 맞춰보니 불상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복원이 시작됐다. 불두와 불상이 접해지는 두 결실 부분에 화강암을 가로지르는 짙은 색의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이 일치했으며, 파괴된 석불좌상의 목 부분을 석고로 떠서 맞춰본 결과 사라진 불두가 확실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주시에서 열암곡 석불좌상의 보수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석불좌상의 복원뿐 아니라 열암곡 석불좌상이 있던 사찰 터의 정비 계획을 함께 세워 정비가 이뤄진다.

2007년까지 열암곡 석불좌상이 있던 사찰 터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12월부터 사찰 터에 간이 작업장을 만들어서 파괴되어 흩어져 있던 석불좌상의 보수와 보존과 복원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석불좌상의 새로이 만들게 된 대좌의 중대석인 중간받침돌은 무게가 2t이었는데 헬기로 옮겨오기도 했다. 광배 또한 보수와 보존작업을 통해 불상의 연화대좌에 접합하여 복원하였다. 2008년 12월 열암곡 석불좌상과 사찰 터의 정비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2009년 1월 29일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석불좌상은 나발이 큼직큼직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육계는 높게 솟아 있다. 불상의 얼굴은 코 밑으로는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눈 부분만으로도 근엄한 얼굴이 그려진다. 팔과 다리의 원통 형태의 곡선은 부드럽다. 균형 잡힌 어깨와 당당한 체격은 안정감 있는 균형미를 보여주며, 몸체의 윤곽은 뚜렷하고 가슴은 얼굴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 가사는 양쪽 어깨에서 상반신을 다 덮으며 내려오는 '통견의'이다. 옷 주름도 부드럽게 표현되어 신체의 윤곽이 잘 보이게 조각되어 있다.

결가부좌한 두 다리의 윤곽 또한 뚜렷하며, 오른발을 올려 발바닥이 보이는 길상좌를 하고 있다. 왼손은 앉은 다리 중앙에 올려 손바닥을 보이는 선정인을 취하고 있고, 오른손은 무릎에 대고 땅을 향한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다. 오른손은 불상의 균형감에 비해 크게 표현되었는데 항마촉지인을 강조한 것으로 손톱까지 세심하게 조각했다. 불상의 측면도 정면 못지않게 조형미가 뛰어나며 불두가 큰 것은 남산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조형미가 정형화되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일신라 후기 불상이다.

불상의 대좌인 상대석의 연화대는 위로 향한 연꽃인 앙련의 형상이고, 중간받침돌 밑에는 하대석이 있는데 3단의 8각 받침과 밑을 향한 연꽃인 복련으로 되어 있다. 광배는 10여 조각으로 깨져 나누어져 있었는데 좌우의 위가 중앙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광배의 화염 문양과 불상을 둘러 감싸고 있는 화불의 구름을 타고 있는 모습, 넝쿨 문양과 보상화 문양은 아름답다 못해 환희심을 느끼게 한다. 두광은 원형으로 문양을 넣었는데, 두광 주위로 보상화 문양을 연꽃의 문양처럼 둘렀다. 멋진 창작이다.

석불좌상에는 금당으로 보이는 전각이 있었는데, 석불좌상을 먼저 조성하고 금당을 조성하였다. 조선 이전에는 부처님을 모신 중심 전각을 금당이라고 하였다.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돌로 불상을 조성할 때는 전각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상을 만들고 이후에 전각을 만든다. 또한 전각은 크지 않아서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불상을 참배하는 형식이다.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의 전각을 생각하면 된다. 전각은 통일신라 말이나 고려 초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각이 먼저 무너진 이후 남아있던 석불좌상이 파괴된 것이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사찰에 난무하는 눈탱이!

삭발에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을 보는 일반업자들의 시선들! ....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운분들이겠거니 하며 눈탱이 염불시설들로 가득채움 눈탱이 : 속은 비어있는 그럴듯한 동남아 부품으로 가득채워 바가지를 씌우는 시설업자들의 비속어로 스님들은 여기에 거의 속음



눈탱이 시설의 표본

눈탱이 시설의 결점

1. 다루기 복잡하여 고장이 잘남 (A/S 불가)
2. 복잡한 기능으로 소리 기능이 분산되어 저질소리
3. 또한 염불이 힘들면 성대 질병과 스트레스 누적
4. 법당서 본사 견본과 법당 제품과 양손의 마이크로 스님 자신이 성능비교시 장난감 소리차이 확인

■ 본사 제품 : 마이크는 이태리 숍스제품, 디지털앰프 스피커는 MADE IN KOREA 확인

※ 특징 : 앰프 다루기 1초, 남해의 토굴부터 설악 신흥사 설법전까지 2천여 시설동안 단 한곳도 고장이 없었음. 명산대찰의 수천만의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반드시 확인) 가격 기존시설과 1/3 차이 확인, 앰프 스피커 최신디지털

▣ USB겸용 디지털앰프 법당스피커 2개, 법당 밖 스피커 2개,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시설가격 190만원부터~ 무한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시중에 없음



가격 ₩ 89만원



최신 디지털 앰프 USB겸용 유 ·무선겸용 마이크 4개 동시사용
출력 3kw 대형스피커 12개까지 연결가능



염불전용스피커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재생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89만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7호 | 15 | 전면광고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 부지 : 3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백양산 아래
- 청정도량 최상의 낙동강 뷰
- 토지 48평, 건물 90평
- 지하1층 34평 법당
- 지상1층 22평
- 2층 20평 및 3층 15평 요사채
- 종교시설 운영, 토굴 활용 가능
- 가액 3억 9500만원(협의 가능)

010-9881-7363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토지 안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새고개2길 47
- 대지 : 종교부지 265평 (삼천포)
- 법당 : 20평 (동향)
- 요사 : 30평 (남향) 방3개
- 특징 : 50년된 우물, 수도
- 가액 : 3억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30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 매매가 65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 종교 부지 적합함
-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 토지(과수) : 약 2800평 • 대지 : 약 200평
- 2층 건물 1동 : 약 60평
-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문자 주세요.

010-3119-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1억(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경북 청도군 소재
-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60평
- 비품시설 1800만원, 보증금 500/40
-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근교 IC에서 3분 거리
- 대지 : 23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 석물다수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오억(5억) 절충가능

010-3540-843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약수암
- 대지 : 1700평 (주차장, 호남고속도로 3km, 도로포장됨)
- 건물 : 법당1동 요사채2동
- 임야 : 20,000평 (1500평 : 전답으로 사용, 마을 인접지역은 전원주택 개발가능)
- 가액 : 5억

010-3758-8039 / 010-5211-99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시가이하로 7억5천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토지 : 종교용지 500평. 대지 :114평. 전 : 89평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등 총117평
- 약 6평 정도의 굴법당 있음
- 진주ic에서 15분. 사천ic에서 10분 이내 거리. ★접근성 좋음★ 약 80년 된 사찰
- 가액 : 6억원. 절충가능

010-4021-858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 대지계획관리, 그린시설 1000평
- 대웅전, 종각, 휴게소, 잔디광장
- 요사채3동, 다도실, 리라이트광석찜질방
- 연못,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 치료완비
- 은행 2억대출 매매가 8억 급매매 전세 놓습니다
- 장난전화 사절

010-5883-2255
010-7151-8546

사 찰 안 내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포항시 남구
- 대지 : 2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2동,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함

※가액 : 보증금 3백만원 월세 20만원 (계약기간 5년이상 해드림)
※권리금 : 1천5백만원
※동시주차 15대 가능
※비구니 스님 원합니다.

010-7788-33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87호 | 16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품은
한때의 악한 생각이 훗날 많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매의 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제주 무료숙박 안내 (2박3일, 3박4일)

제주 풍차와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한경면 신창리에 **요사채를 무료개방**합니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림하시는 하루는 재능기부나 농어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2번지 / 대한불교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백년여행사 010-6236-1135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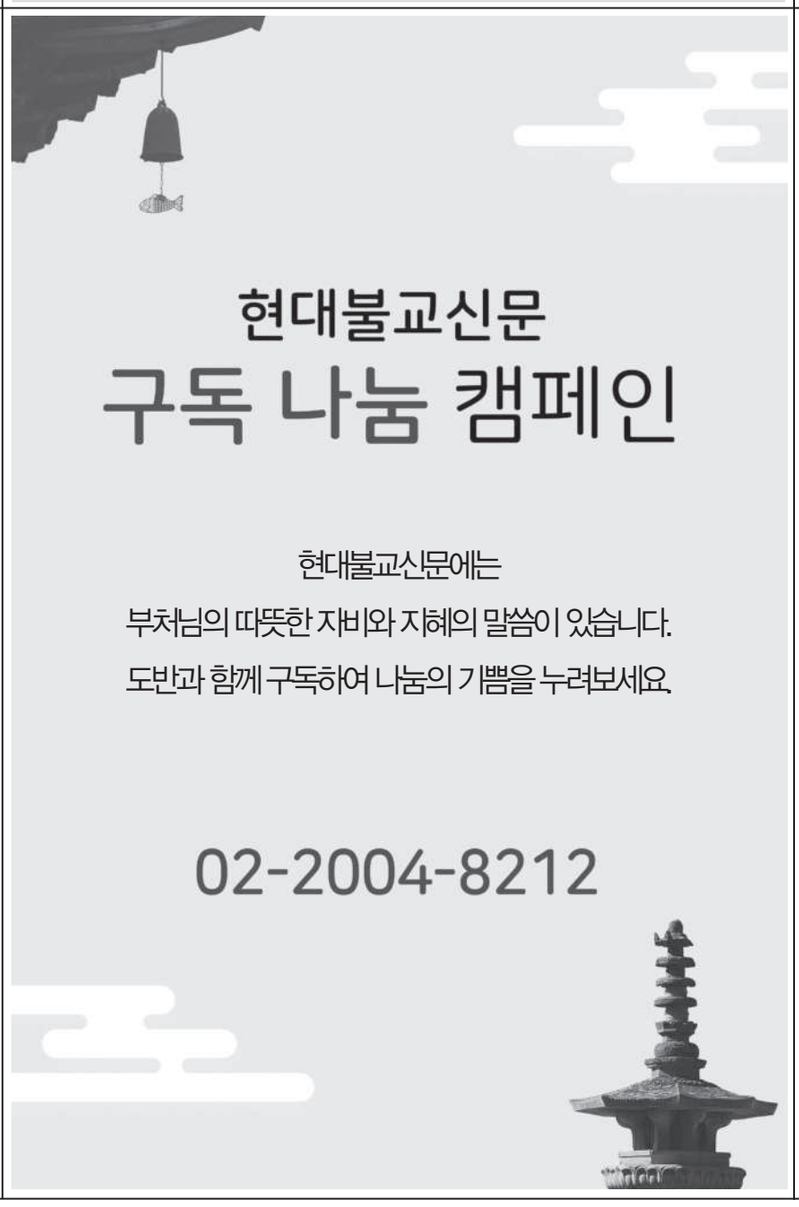
010-4766-6358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굽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80년 그날, 11살 아이는 왜 죽었나



이안의 Media In Buddha

㊶ 영화 〈송암동〉



영화 〈송암동〉 국회 시사회에서 이조훈 감동이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 송암동 학살 사건 조명한 영화
민간인 학살 과정, 입체적으로 재구성

5월, '계절의 여왕' 딱 그 말처럼 덥지도 춥지도 않고 햇살 좋은 시절,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같은 모든 좋은 관계성의 날들이 다 들어있는 달. 딱 그런 5월의 어느 날이었다.

광주시 외곽 한적한 마을 송암동, 사내아이들이 마을 어귀에 다리 아래 물가에 모여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편을 나눠 전쟁놀이를 하기로 했다. 한쪽은 국군, 다른 한쪽은 적군. 자기는 적군 하기 싫다는 아이에게 전재수 어린이가 아주 당차게 말했다. "나는 커서 군인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편이 국군할거야!" 그렇게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지나갔다. 아이들은 군인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자신이 크면 국군이 되겠다고 다짐한 전재수 어린이도 함께.

그 군인들은 아이들의 손 인사에 응답했다. '진짜 총'에 장전된 '진짜 총탄'으로 탕탕탕탕탕! 놀란 아이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달아나는 아이들 등 뒤로도 군인들의 총질은 멈추지 않았다. 자라서 자랑스러운 국군이 되겠다던 전재수, 초등학교 4학년, 고작 11살. 형이 도시에 나가 벌어온 돈으로 사 준 고무신이 벗겨지자 그걸 집어들려고 하다가 자신이 롤 모델로 생각하던 국군들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아이. 망월동 묘역을 찾은 사람들이면 차마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참담한 어린 희생자.

어떤 역사든 그 피 흘림을 해결하고 책임을 지면 그 피는 희생이든, 영광이든, 오욕이든 과거의 업으로 잘 보내고 현재와 미래는 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바로 잡는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가 뒤틀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가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역사가 아직 드리우고 있다면? 그 역사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과 정체성 자체의 문제라면? 그 역사를 해결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곡하거나 못된 혐의를 뒤집어씌워 당장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름으로 써왔다면? 그런 악의의 현장에서 자신이 보고 겪은 일을 밝히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타난다면?

이조훈 감독의 〈송암동〉은 이런 진실과 용기로 역사를 지금까지 내내 발목잡으며 뒤틀어 놓고 있는 국가적 범죄에 대해 밝히는 영화다.

1980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폭거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인 지역 광주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봉쇄하기 위해 계엄군이 광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한 마을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과 총격을 벌였던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송암동·효천역 민간인 학살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극영화 〈송암동〉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광주에 파견된 특전사 요원들, 그동안 시민들이 저항하기 위해 들었던 총기를 회수하고, 항쟁 과정에서 사망한 시신들을 집으로 운구하기 위해 인근 마을들을 하나씩 돌던 시민군, 인근에 매복하던 계엄군, 그리고 송암동 일대의 주민들이 겪은 1980년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벌어진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으로 발생한 군인 희생자들과 그런 어처구니없는 착오에 대한 화풀이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실은 현장에 있던 당시 현역 계엄군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측이 아닌 진실을 드러낸다. 개발독재 시대였던 1960년대, 서산 간척 사업 당시 강제 노역에 희생된 민간인들과 권력 비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서산개척단〉(2018년), 총탄에 맞아 쓰러진 시민을 찍은 사진 한 장 말고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1980년 5월 21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전남도청 앞에서의 네 시간에 대해 광주를 제대로 알려보자고 마음먹었던 한인회 비디오, 사망한 시민은 한 명도 없다는 군의 목소리, 광주 비디오를 보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시민의 목소리 등을 모아 광주 항쟁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 다큐멘터리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2020년) 등 드러나지 않은 역사의 진실을 추적해온 이조훈 감독의 네 번째 장편영화다.

국가기구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1980년 5월 24일, 광주 봉쇄를 위해 도심 외곽으로 향하던 11공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들이 광주 재진입 작전을 위해 광주 비행장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남구 송암동을 지나던 상황에서 벌어졌다. 송암동에서 목포 방향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구축 중이던 보병학교 교도대 전투교육사령부대 소속 대원들이 공수부대원들을 시민군으로 착각, 오인사격이 이뤄졌다. 갑작스러운 교전으로 일부 공수부대원들이 사망했을 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 있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다. 아군끼리의 오인사격으로 내부 사상자가 발생하자 공수부대원들은 송암동 인근 마을을 수색하며 화풀이로 마을주민들을 연행해 즉결 처분했다. 초등학생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화풀이로 보복학살을 감행했다. 이 사건으로 민간인 17명, 군인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역 연극인들을 배우로 등장시켜 민간인 학살 과정을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당시 광주에 파견된 군인의 현장 상황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해 극영화로 재현한 이조훈 감독은 "단순히 42년 전에 실재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학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반인도적 범죄'로 책임자를 기소하는 과정까지 따라가고자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1980년 당시 이조훈 감독은 광주효덕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학교가 휴교해서 집에 있었는데, 헬기가 지나가고 총소리가 들렸다"는 기억과 "산 하나 너머 동네에서 아이 2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른들이 나도 거기서 놀았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감독에게 오랫동안 5.18은 '어떤 연유로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다.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을 제작한 이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게 된 감독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계엄군의 제보를 받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영화 〈송암동〉을 만들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국회 시사회에서는 전직 군인이 전화연결로 직접 관객에게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5·18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분들 중 80명은 봉분도 없는 행방불명자"라면서 "최소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찾아내는 게 진실 찾기이고, 책임자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들을 잠들 수 있게 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취재한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법련사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올렸다. 사노위스님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를 만들고, 민주와 정의, 인권 등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재와 영화 〈송암동〉은 같은 발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발원의 실현을 비는 마음으로 영화의 개봉을 기다린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㉓

1. 연기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례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② 부모님을 부처님 모시듯 항상 공경하고 감사하며 생활한다.
③ 나도 남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④ 귀하다거나 천하다는 분별심을 버리고 모든 대상을 평등하게 대한다.
⑤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기쁜 삶을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 노력한다.

해설 : 자연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이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다. 인간과 동물과 식물, 자연, 나아가 환경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만이 행복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 동, 식물이 괴롭게 되며, 그 괴로움은 연결되어 있는 인간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환경을 같이 구성하는 모든 중생을 위한 미래를 그려야 할 것이다.

2. 불교는 내가 가진 행동과 언어, 사고의 습관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친다. 삶과 세계를 움직이는 힘인 업(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지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② 똑같은 사람인데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모두 신의 뜻이다.
③ 유쾌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십악업을 실천해야 한다.
④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⑤ 모든 존재는 영원히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은 상호 간에 영향을 안 받는다.

해설 : 업에 따르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에 기반한 몸과 입으로의 실천이 필요하며,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은 각자와 사회의 업이 만들어낸 것이다. 유쾌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십선업을 지어야 하며 모든 존재의 특징은 한 찰나의 순간마다 바뀌며 상호 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3. [보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진리의 말씀을 삼보(三寶) 중 법보(法寶)라고 한다.
㉡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 십이연기는 부처님의 삶이 12가지로 윤회하는 과정을 말한다.
㉣ 연기(緣起)란 모든 것은 원인을 근거로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것이다.
㉤ 중도(中道)는 육사외도들이 말하는 상주론(常住論)과 단멸론(斷滅論)을 가리킨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십이연기는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삶으로, 부처님께서는 윤회로부터 벗어나신 분, 연기를 명확히 깨달으신 분이다. 중도란 극단주의를 버리고 바른 인식으로부터 바른 집중까지의 팔정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럼으로 항상 존재한다는 상주론,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는 단멸론과 같은 극단주의는 중도라 할 수 없다.

4.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涅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생사의 구속을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말한다.
② 열반은 죽고 나서야 실현되는 경지를 말한다.
③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를 가리킨다.
④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니르바나(nirvana)'를 번역한 것이다.
⑤ '반열반(般涅槃)'은 다시 태어남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말한다.

해설 : 열반은 니르바나의 음역으로 완전한 열반이라 할 때는 반열반이라고도 하며 불교의 목표이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생, 로, 병, 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진하였으며, 이 네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 고요해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므로 열반은 죽음의 극복이지 죽고 나서야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5. 다음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내용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삼보(三寶) : 불, 법, 승
② 삼학(三學) : 계율, 선정, 지혜
③ 삼독(三毒) : 탐, 진, 치
④ 삼계(三界) : 욕계, 색계, 무색계
⑤ 삼업(三業) : 상업, 공업, 어업

해설 : 삼업이란 일반적인 중생들이 짓고 사는 업으로 우리는 뜻과 말과 신체적 활동으로 업을 짓는다. 이를 의업(意業), 구업(口業), 신업(身業)의 삼업이라고 한다.

정답 : 1. ① 2. ④ 3. ⑤ 4. ⑤ 5. ②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⑫ 〈법구경〉(담마빠다) ③

▶한줄 요약
〈법구경〉은 423편의 게송으로 이뤄진 경전이다. 게송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알려면 〈법구경 의석〉을 읽는 것이 좋다.



전생의 혈연, 금생의 법연

게송만으로는 쉽지 않다

〈법구경〉 '분노의 품'에 들어 있는 게송을 소개합니다.

항상 신체적으로 제어되고
살생을 여읜 성자들은
불사의 경지에 도달하니
거기에 이르러 근심을 여읜다.
(225번째 게송)

이 시를 읽어보시죠.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뭐, 별로라고요? 괜찮습니다. 사실, 그냥 그렇지요? 이런 구절보다는 〈숫타니파타〉에 들어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구절이 더 와닿는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게송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세속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행동과 말, 생각을 제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 또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편을 먼저 챙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일쑤요, 이런저런 일로 속상할 때는 함부로 행동하는 바람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성자들은 다릅니다. 아주 심오한 이치를 공부하고 깨달아야 성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법구경의 게송을 읽어보자면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성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행동거지를 제어하고 조절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자는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기에 스스로도 죽음을 떠난 불사(不死)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지요. 그곳에 도달하면 이 세속에서 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온갖 근심과 고민은 자취를 감춰버린다고 〈법구경〉은 말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온갖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고 속 시끄럽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법구경의 구절처럼 자신의 행동을 잘 살펴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데에 몰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아무튼 〈법구경〉 225번째 게송은 이런 성자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보통의 세속 사람들에게는 어찌 되었거나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꺼운 법구경(법구경의석)'을 펼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이런 게송을 읊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은 부부, 부처님에게 달려오다

어느 때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러 어느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부처님을 보더니 달려와서 엎드려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어디를 다니느라 오랫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들의 도리가 아니더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오늘에야 처음 보았구나"라고 말이지요.

부처님은 늙은 남자를 내려다보며 묵묵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당황했지요. 그런데 이 남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서 집으로 가자. 네 어머니를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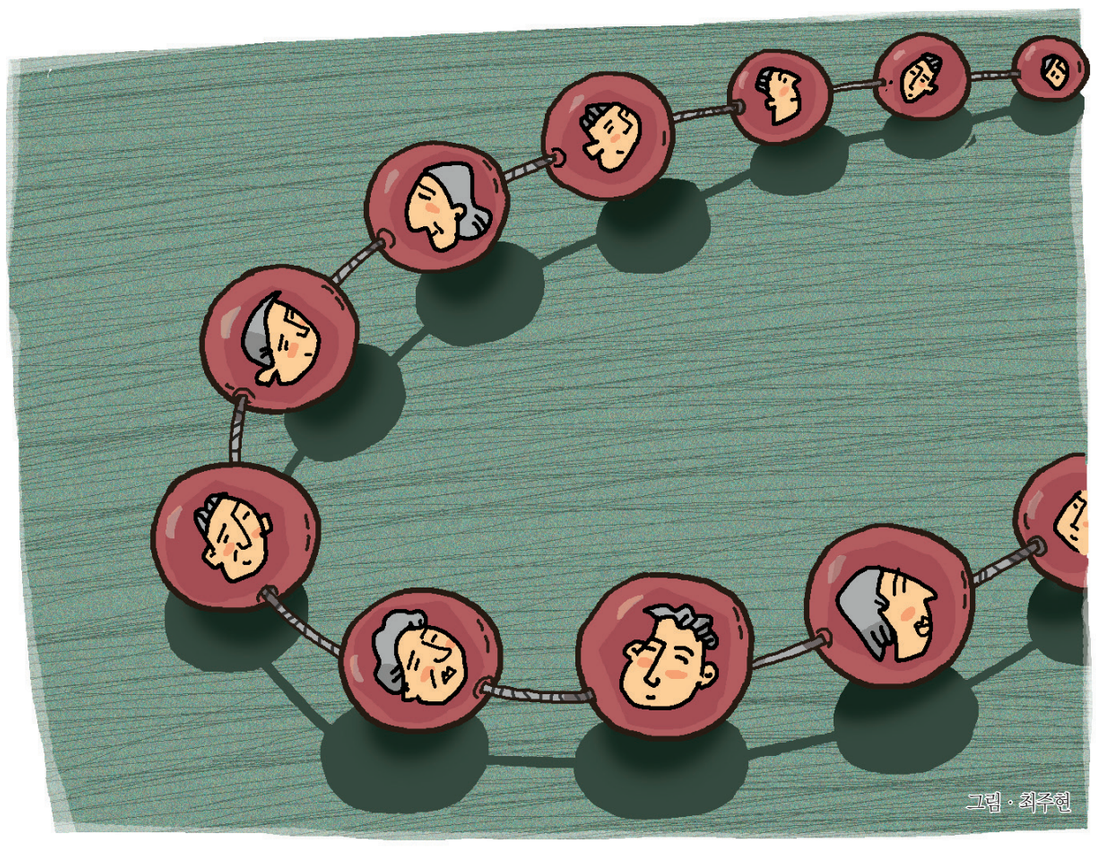
부처님은 그 남자가 이끄는 대로 그의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니 늙은 여인이 반갑게 나오면서 앞서의 남자가 하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던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네 형이 왔다. 어서 나와서 인사를 하거라"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부부는 학수고대하던 아들을 만난 부모 심정이어서인지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대하듯 반갑게 하대하더니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서둘러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렸지요. 공양을 마치자 부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집에서만 공양을 하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에게는 한 집을 정해 놓고 탁발을 하는 법은 없었기에 그 원칙을 일러주자 부부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집에서 공양 초대를 받았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단, 그 집의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가져가, 그것으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렸으면 합니다."


그림 · 최주현

423편 게송으로 이뤄진 '법구경'
게송마다 다양한 에피소드 존재
내용 알아야 게송들 완벽히 이해
이왕이면 '두꺼운 법구경' 읽기를

이렇게 해서 무려 석 달에 걸쳐 부처님과 제자들은 노부부의 집에서 공양을 하거나 다른 이의 집에서 공양을 하더라도 노부부의 음식을 들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이 "아들아~"라고 맞아들여도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그들을 향해 정성스레 법문을 들려주었고 노부부는 석 달 동안 부처님에게서 법을 청해 들었습니다. 노부부는 천천히 성자의 경지로 나아갔지요. 마음속 번뇌와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해탈의 경지로 다가간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노부부는 가장 높은 성자의 자리인 아라한의 경지에 들었고 그리고서 이승의 인연을 다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부모님 장례를 치르듯 노부부의 장례를 위해 화장터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전생 부모의 화장을 마치고

그런데 석 달 동안 부처님 제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부부라 하더라도 어찌 부처님을 아들이라 부를 수 있단 말인지…. 부처님에게는 카필라바스투의 숫도다나왕이 아버지요, 마하마야 왕비가 어머니 아닌가 말입니다. 마야 왕비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왕비가 정성을 다해 기르셨으니, 아버지 어머니라면 이런 분들이어야 마땅할 텐데 부처님은 어쩌자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노부부가 부모 행세를 하는 걸 묵묵히 받아들이셨단 말인지요.

제자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걸 아신 부처님은 노부부와 당신의 전생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제자들이여, 이 노부부는 과거 오백 번의 생애 동안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고, 오백 번의 생애 동안 나의 아저씨와 아주머니였고, 오백 번의 생애 동안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다. 나는 이렇게 길고 긴 생애 동안 이 노부부에게 양육되었다."

당신의 전생을 환히 기억하는 부처님이기에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노부부는 아직 지혜로운 성자가 아니었기에 이런 전생을 기억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 오랜 생애 동안 친애하던 습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아들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함께 산 인연과 현재에 만난 행복으로 사랑은 물속의 연꽃처럼 다시 솟아오른다."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기쁘고 행복한 적이 있었다면, 그건 그 사람과 세세생생 참 좋은 인연이었다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부모,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식, 당신의 친구와 친척들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전생을 거쳐 오면서 사랑과 존경의 인연으로 함께 정을 나눈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누군가와는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고 괜히 미워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음 생에 또 만나서 또 다시 미워하게 될 것이 뻔하니 금생에 토닥토닥 정을 쌓아야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노부부 이야기가 〈법구경〉 225번째 게송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지 않았군요. 노부부의 화장을 마치고서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여쭈었지요.

"이 노부부는 다음에 어느 곳에 태어날까요?"

"이 두 분은 거룩한 경지를 이루었기에 다시 태어남은 없다. 태어남이 없으므로 죽음이 없는 불사의 열반에 이르렀다."

그런 뒤 부처님이 들려준 게송이 앞서 225번째 게송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부처님이 전생 그 어느 때인가 아주 많이 부모자식 인연을 맺은 이와 금생에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서 법을 주고 받았다는 것. 행여 전생에 자식을 기르느라 속을 태우거나 눈물바람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금생에는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성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 이런 사연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생의 혈연이 금생에는 법의 인연으로 아름답게 꽃을 피운 것이지요.

두꺼운 법구경, 얇은 법구경

〈법구경〉에는 423편의 게송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송마다 이렇게 긴 사연들이 달려 있으니 이런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법구경〉은 얼마나 두꺼워질까요? 사연들은 때로는 현대인들에게 비현실적이어서 그리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그 냉정한 지성을 느슨하게 한다면 불교가 뿜고 있는 향기를 담뿍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시던 시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과 만나고 새롭게 인연을 맺었는지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구경〉 읽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라는 청을 받으면 저는 늘 되묻습니다.

"두꺼운 걸로 읽으실래요? 얇은 걸로 읽으실래요?"

이왕이면 두꺼운 〈법구경〉으로 행복한 불교 여행에 나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대행 스님

이 진실된 마음의 무주상 보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둘러치고 메치고, 이리 둘러 가고 저리 둘러 가고, 잘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고, 얽히고설키고 이렇게 하면서 팔자 타령도 하고 운명 타령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나가시는 자기의 그 인생관, 그런 거를 살펴보실 때에 부처님 법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잘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백봉 국사도 "이 세상 일체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한다면 네가 견성하고 성불할 수 있느니라. 그 견성도 이름일 뿐이요, 성불도 이름일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체 만물이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 원리가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 우리 한마음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물가에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각각 서 있었지마는 모습을 가지고, 그 무슨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양면에 마주 서서 속삭이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습을 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이 오고 가고 오고 가면서 눈도 없는 눈으로서의, 말 없는 말로서의, 몸 없는 몸으로서의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같이, 이리로 와도 둘이 아니요, 저리로 가도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일 초도 떠나지 않는 그 사랑이, 애정이 너무도 치열하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항상 바람 따라 물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고 모든 마음들이 항상 같이 속삭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마구 뽑아 버리고 또 가지를 잘라 버리고 이런다고 서로 속삭거리면서 얘기를 했지마는, '그 모습이야 어쨌든지 그저 아픔만 조금 스쳐 갈 뿐이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됐지.' 하고서 항상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떨어질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양면에 살고 계셨는데 항상 우리들을 데리고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한자리고 또 아빠가 오시면 우리들에 한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우리가 지낸 거와 같이 인제는 너희들 갈 데로 바람 따라 물 따라 갈 때가 됐느니라. 바람 따라 물 따라 가다가 물에 쓸려서 발길이 닿걸랑은 거기에 바로 안식처를 만들고, 돌에 닿걸랑은 돌 틈에 안식처를 만들고, 얕은 물에 발길이 닿걸랑은 거기 정착을 해라. 정착을 하고 보면 너희 모습들이 점점 달라지면서 사랑하게 되고 너희들도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너희들 같은 애기를 낳을 수 있느니라. 그러되 언제나 거슬러 올라가면 살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모습이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나무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갖고 산단다. 엄마 아버지를 똑똑히 봐라. 이건 모습이니라. 모습이고 이름이지마는 스스로서 바람 따라 물 따라 정착하는 일은 끊임이 없다. 그러는 동안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속삭이면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은 또한 끊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형체가 없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무들이니라. 저렇게 사람들, 갖은 짐승들, 갖은 새들이 다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바닥에 정착을 하고 모습을 갖추어서 자랑하고 있지마는, 다니지 않고 정착을 해서 있는 모습이나 저렇게 다니는 모습들이나…. 저 다니는 모습들은 더 바쁘니라. 물질을 보고 이름을 듣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먹고 살려니까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러니 너희들은 생존 경쟁에 치열하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따라서 네 발이 닿걸랑은 정착을 해라." 이렇게 해 놓으니, 순간 그 씨들은 우수수 떨어져서 거기에 닿은 놈은 거기 그냥 부모 밑에 정착을 하고, 바람 따라서 또 물로 떨어진 놈은 물 따라서 한없이 흘러가다가 어느 물가의 흙에 닿으면 정착을 했고, 섬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을 했고…. 그 많은 나무들도 그렇게 생에 의해서 바람 따라 물 따라 이렇게 흐르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들이나 생물, 모든 동물들이 살아나가는 데에, 사람도 역시 그렇겠지마는, 엎치고 또는 뒤집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숨바꼭질하면서 생존 경쟁에 있어서 얼마나 허덕이고 찢기고 아프고 웃고 울고 하는지, 이럭하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한층 더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생존 경쟁은 상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김생김도 다 차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부자연스러웠다면 그 모습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력이라고 봅니다.

자기 마음으로 이것이 거북하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따라서 자기 방어도 할 수 있고, 자기 마음 따라서 자기 모습도 바꿀 수 있고, 자기 마음 따라서 발도 길게 만들 수 있고, 발가락도 더 나오게 할 수 있고, 꽁지도 떨어지게 할 수 있고, 날개도 있게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새도 부리를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고, 넓게 만들 수도 있고, 휘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곧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 가지가지 모든 그것들이 다 마음의 조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공부 하는 사실 자체는…, 바로 우리 체가 있는 몸뚱이 하나로써는 도저히 유와 무를,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는 한계가 있는데 천차만별로 천 가지 만 가지 만법을 어떻게 다 양하게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 생김생김이 모든 게 모습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니라. 그 모습, 이름 속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자체에 진의가 있느니라. 그 마음 자체에 한마음이라는, 한자리 한마음이라는 그 근본이,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체가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은 한마음이 될 수 있느니라. 한마음이라는 말도 그것도 이름이니라. 삼천대천세계라는 그것도 이름일 뿐이요, 여래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다. 여여하게 걸림 없이 내세울 게 없이 그대로 영료하게 내가 물 먹으면 물 먹고 옮겨서 또 밥 먹으면 밥 먹고 하는 거뿐이지, 그 외에 무엇을 이름을 지을 게 있으며 어떤 모습을 보고 끄달릴 게 있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마는, 또 사람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습,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끄달리지 마십시오

☞ 19면에서 계속

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것은 수시로 나투면서 누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면서 만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천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은 일분일초도 어기지 않고 내 마음 내는 대로 그대로 그대로인 것을….

없을 때는 부처요, 한생각 내서 모습을 만 개를, 천 개를 만들었을 때는 바로 화신이요, 바로 법신이다 이거야. 그러니 그 법신이 있는데 어찌 보현, 문수가 없겠는가. 자재력이 있다면 거기에는 다 십대 제자가 있고, 십대 제자만 있는 게 아니야. 모두가 그것도 이름이고, 그렇게 광대무변한 그 마음 하나가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습이 돼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해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어.

또 그렇게 됐을 때에 사람사람이 이 세상, 우리 이 지구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상하를 막론해 놓고 저 벌레에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살아나가는 그 생존력들을 볼 때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큼 치열하게 지금 찢기고 찢고 그러는지…. 찢는 그 생물은 찢기만 하고 사는 건 아니야. 찢어 먹기만 하는 건 아니야. 그 밑으로 가면 또 찢어 먹혀. 찢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찢어서 주기도 한다 이거야. 자기 몸을 또 찢어서 주기도 해.

그러니 비교해서 얘기를 한 것이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찢어 먹을 때하고 찢어 먹힐 때하고 두 가지를 놓고 반복되는데, 찢어 먹히면 찢어 먹고, 찢어 먹었다 하면 찢어 먹히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게 업보며, 어떤 게 선한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또 부처다 중생이다 할 때 중생이 이 우리 몸뚱이 속에서 응시 안 하고 있다면 부처라는 그 선장이 나오질 않아.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생기질 못해. 여기에는 갖은 각색의 생명들과 모습들이 갖은 각색의 모습들을 해 가지고 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라는 그 한마디가 나온 것이 사람이라는 한마디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이 되고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된다면 어디까지나 남들과 무수히 같이 그냥 걸어가면서 항상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무주상보시의 마음을 내 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만 알았지 둘도 몰라. 모습을 가지고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시가 아니다 이거야. 또 모습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줄 때에 욕심 없이 내놓는 것만이 무주상이 아냐. 그것은 한계가 있어, 또. 써 버리면 그만인 그 한계가 있어. 그러나 마음이라는, 이 진실된 마음의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영원한 거야. 영원히 속삭일 수 있고 영원히 그것은 찰나찰나 옮겨 가면서 모두가 나 아님이 없이 나투어 가면서 영원한 거라.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나투면서 항상 같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어저께도 내가 가면서 이런 슬픈, 슬픈 거보다도…. 미생물에서부터뿐만 아니지마는 아래서부터, 중에서부터 상으로까지 수없이 엎었다 젖혔다 하는 이 되풀이에서 누가 업보가 있다고 할 거며, 누가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가 중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가 부처라고 할 수 있겠나. 모두가 이렇게 아픈 것을 어떻게, 이 한 가슴 속에 스며드는 이 째릿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단지 그렇다. 본래 있는 한 눈가에는 이슬만이 오고 가는구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 한마음은 어딘가가 자기라는 걸 세울 게 없는 것이 뚜렷하니 때로는 벌레하고도 밤중에 같이 울어 줄 수 있고 귀뚜라미하고도 같이 울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울면 같이 울어 줄 수 있고, 가깝다 멀다 탓 안 하고 가 줄 수 있고 와 줄 수 있고, 오고 감이 없이 그렇게…, 바로 나인지라.

그런 것은 아까 나무 얘기 했듯 그렇게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광대무변한 그 마음의 법칙이, 이 법칙이라는 이 자체도 이름일 뿐이지, 법칙 없는 법칙입니다. 인간의 미가 그 한마음에서 스스로 생명수처럼 흘러져 나올 때, 여러분의 한마음이, 이슬이 같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핏방울처럼 눈가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지게 돼 있죠. 이것을 어느 누구가, 어느 누구가 이것을, 이 한 방울의 우주의 근본을 어느 누구가 짐작이나 하랴. 이 한 방울의 이슬은 수많은 사람의 이슬이거늘 어떠한 것을 이슬이 아니라고 하고 이슬이라고 하고 이걸 탓하랴. 금방 울었다가 금방 웃는 것을. 금방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것을.

금방 낮이 됐다가 금방 밤이 되는 것을 밤 낮이라고 둘로 나누어야 할까? 아니다! 잠시 잠깐 밤이 있고 잠시 잠깐 낮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우리 모습도 아니요, 이름도 아니다. 단지 그냥 본래 있는 한 눈가의 이슬방울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째릿째릿한 아픔에 의해서, 본래 아픈 것은 없건마는, 본래 아픈 것이 있기에 본래 아픈 것이 없다고 한 것도 이름이다. 우리가 다 같이 웃을 때에 같이 웃고 울 때에 같이 울었던 그 시절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이 한마음 속에서 생존의 문제만 아니라, 생존 경쟁을 해 가면서 과학이니 문학이니 또는 문화니 역사니 공업이니 또 정치니,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붙어 돌아가는 이 하고많은 맹랑한 일들이 어디에서 다 흘러져 나오나?

단,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승려들도 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중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려고 해야 진짜 위아래가 없이 중도의 그 지혜를 무기 삼아서 일체에 모두 한마음으로 고정된 게 없이 굴리면서 자재로운 그런 이슬도 같이할 수 있지 않은가. 도대체 중이 뭐며, 또 속인이 뭐며 부처가 뭐며, 뭐가 그렇게도 많이 이름이 붙어 있나? 사람이 질서를 지키고 살려니까 그 이름이 붙은 것뿐이고, 또 생존해서 살려니까 그 모습을 차원대로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려 줄 것은 이 몸 하나로써는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서.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한마음으로 이 모두를 지혜롭게 굴려 나갈 수 있다면, 보이는 세상 안 보이는 세상을 휘어잡아서, 보이는 물질 보이지 않는 물질, 보이는 마음 안 보이는 마음을 다 한데 합쳐서 나 아님이 없이, 내가 하지 않는 일이 없이, 높고 낮음이 없이, 너 나가 없이, 부처 중생도 없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루어 나가는, 한 이슬방울 오락가락하듯이 같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살기에 급급하지 않을 겁니다.

> **어떠한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 **만약에 불망치가 떨어진다 해도**
> **내가 불망치가 돼 준다면 그 아픈 걸 알아서**
> **그 불망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씨들이 그래서 바람 따라서 물 따라 가다 보니까 정착이 되는 것은 물에 밀려서 흙에 닿으니까 정착이 된 거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섰던 거고, 나무가 섰기 때문에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도 벌레들도 살 집을 찾는 거죠. 나무도 그렇게 바람 따라 다니면서도 생존의 경쟁을 하는 그 모든 날아다니는 거와 기어 다니는 것들의 집이 돼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나무가 되는, 그러한 이치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동에서 서로, 바람에 서쪽으로 날려서 서쪽에 가서 정착을 하는 씨앗들도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서 정착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사방에 문이 없고 사방에 정착할 곳이 따로 없고 모두가 다, 사방이 터져서 모두가 내 집 아닌 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모든 걸 착을 떠나서, 우리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첫 번에 남편을 만났고 그다음에 부모를, 자식을 만났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허둥지둥 허둥지둥, 이것 저것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없으리만큼 바쁘게 돌아치니,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고정됨이 아니라. 뿌리 없는 나무처럼. 뿌리 없는 마음처럼. 고정된 마음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이 여기서 천 리를 간들 못 가리까. 이 세상의 일체 만물과 만생을 같이 하려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렇게 갸륵한 거라.

그러니 어질고 착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혜를 넓혀서 그걸 무기 삼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이슬이 돼 준다면, 우주 세계의 모두가, 전체 저 은하계로부터 모든 혹성들의 어떠한 생명이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렇게 모두 돌고 도는 그 마음들이 한마음이 돼서, 어떠한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만약에 불망치가 떨어진다 해도 바로 내가 불망치가 돼 준다면 그 아픈 걸 알아서 불망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모두가, 아까 한 이슬로 표현을 했지만, 본래 있는 거지만 본래 있는 눈가의 그 눈물은 항시 이슬과 같이 오락가락하는 그 마음이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역경을 헤쳐 가면서 살아나가는 데에 모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습,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끄달리지 말라 이 소립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돈을 영원히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요, 몸도 영원히 당신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식도 영원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요, 부모를 영원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까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면, 바람 따라 물 따라 정착을 하면 그냥 사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바람 따라 물 따라 또 흩어지면 또 사는 것이고, 또 흩어지면 또다시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디디면서 나투면서, 변질돼 가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영원히 같이 걸어가고 있죠. (녹음 안됨)

병고에 휘달리니까 내가 병이 낫고자 해서 온 것입니까? 가난해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살려고 온 것입니까? 그 여러 가지를 다 한생각에 여여하게 걸림 없이 모든 것을 녹여 버리고, 서서히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정착할 곳이 따로 없이 흘러 도는 것처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스스로 바로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죽일 사람도 없고 죽을 사람도 없고, 욕먹을 사람도 없고 욕할 사람도 없고, 가난이 붙을 데가 없고 붙일 사람도 없고, 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5월 22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⑰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몰입, 열등감서 비롯된다

"내가 얼마나 예쁜데!"

오래 전에 종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주인공 천송이가 한 대사다. 톡톡 튀는 캐릭터에 천방지축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자신의 미모를 뽐내며 비슷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해 연못에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Narcissus)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유래가 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자기애'는 자존감과 연결되면서 바람직한 문화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그래서 모 학자는 현대를 '자기애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집단과 우리를 강조하던 전통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지면서 자기 홍보와 자기주장은 더욱 중요해졌다.

물론 자기애는 긍정적인 특성이 있다. 자신을 사랑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애는 사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성격장애 B군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진단명이 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단순한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타인을 자신의 도구로 생각한다.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때 심하게 분노하고 지나친 자기 몰입으로 이성이 마비된다.

사실 그들은 자존감이 높아 보이지만 열등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내면에 깊게 깔려있다. 학자들은 무의식에 자리 잡은 자신들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한 태도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결과가 되었다고 한다.

혹시 주변에서 지나친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본인 말만 맞고 지적을 참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과 남편 자랑을 하는 아주머니,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예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친구.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성과 성향을 이해하기 위해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진이(가명·40) 씨는 두 딸의 엄마였다. 눈에 바른 마스카라는 뭉쳐 있을 정도로 화장이 짙었고,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서 상담실을 방문했다. 그의 상담 주제는 학교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을 향한 불평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비난이 조금이라도 들리는 날에는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놓고 싸우기엔 교양이 없는 행동이라며 참기도 했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분노했다.

타인을 도구로 보는 비정상적 사고
무상(無常)의 가르침 다시 되새겨야

진이 씨는 "어디서 내 딸에게 함부로 감히, 뭐 같은 것들이 지적질이냐"며 씩씩거렸다. 진이 씨는 자신을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 여겼고, 타인들은 자신의 칭찬 욕구에 반응해 줘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고 지적하는 사람은 "감히 네까짓 게"라는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다.

이처럼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경전에도 나온다. 〈법구경〉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동생 '자나빠다깔야니'가 등장한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루빠난다(아름다운 난다)라고 불렸다. 그녀는 모든 가족들이 출가하자 의지할 곳이 없고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믿음 없이 출가를 결심했다. 그녀는 부처님이 설하신 "아름다운 형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없다. 느낌, 지각, 형성, 의식도 마찬가지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을 듣고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나를 보고도 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루빠난다는 부처님과 마주하기를 꺼려했고 설법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비구니와 여자 신도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소리를 듣고 몰래 찾아가 법문을 듣기로 결심했다. 루빠난다가 오는 것을 아신 부처님은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한 루빠난다를 교화시키기 위해 아름다움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을 부숴버리기로 하셨다.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16세의 소녀를 루빠난다만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점차 나이 드는 모습으로 변하게 했다. 그는 점차 나이 들어 중년의 여성, 늙은 할머니로 변하게 됐다. 그 모습을 본 루빠난다는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부처님은 병들고 늙어 똥오줌 위에서 뒹굴다가 죽음에 이르는 여성을 보여주셨다. 이어 시체가 된 여인의 몸에서는 누런 고름이 나왔고 구더기가 꾸물거리며 기어 나왔다. 이 모습을 본 루빠난다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인이 늙고 병들어 죽었듯이 나의 몸도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루빠난다는 자신의 몸을 무상하게 바라보게 된다.

자기애가 넘쳐 사랑하는 대상들을 살펴보자. 루빠난다가 바라본 환상의 여인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다. 자랑할 것이 없는 무상한 것임을 알아차릴 때 진정한 자기애를 실현할 수 있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⑩ KSNS와 무의식 신경(上)

발바닥 신경 활성화하면 몸 균형 살아나

KSNS 소개

'KSNS(스본스도)'의 가장 새로운 개념은 바로 무의식 신경이다. 김세연 상트페테르부르크의과대학 명예교수가 발견한 대체의학이다.

무의식 신경은 '감각과 운동을 관장하는 체성신경으로 생명체에 작용하는 중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신경구조로 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불수의 신경'이다. 이 신경을 발견한 김세연은 이를 'KSNS'라고 명명하였다.

독일 의학박사 카를 필하버 교수는 "김세연 교수는 움직이는 인간을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의학의 길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신경 고장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동적인 치유 방법을 통해 한쪽으로 쏠려진 근육을 다시 대칭 상태로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한쪽으로 마모됐던 관절을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린다고 한다.

김세연 교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세웠다고 했다. KSNS는 해부 의학적 지식과 섬세한 두 손의 감각 기능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 과정이 이뤄지므로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기도 하다.

KSNS는 몸의 전체적인 균형과 무의식 신경의 활성화를 중요시한다. 지압 또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무의식 신경을 일깨우고 근육을 강화시킨다. 이로써 무너진 밸런스를 잡아 몸이 스스로 치료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KSNS'다.

전통 의학에서 질환의 유무와 병명을 찾아내는 진찰과정을 '스본(스스로 본다)'이라고 하면, 스본을 통해 찾아낸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스도(스스로 도와준다)'라고 한다. '스본스도'에서 몸의 균형의 가장 기본은 발바닥이며, 그중에서도 발가락에 퍼져 있는 신경의 활성화를 그 시작점으로 한다. 독일의 빌프리드 베르크만 교수는 KSNS를 동아시아의 전통성을 지닌 동양 의학과 서양 의학과도 일절 연관성을 갖지 않는 창의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스본스도는 비교적 최근에 생겼지만, 그 탁월한 효과로 인해 치료 방법을 한방, 양방은 물론 물리치료사, 체형교정원 등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김세연 교수는 인체를 공학적 기계구조와 신경망의 네트워크로 봤다. 이에 따르면 기계적 구조는 뼈와 관절의 수평 수직을 유지하면서 몸의 중심은 늘 몸 안에 있다. 그리고 뼈, 근육, 관절은 서로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고정됐다.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관절과 척추는 용수철처럼 진동하는 모습이다. 이는 에너지를 아주 적게 소모하도록 몸의 구조가 돼있음을 설명한다.



사진출처=unsplash

그리고 그 구조가 유기적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안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 신경이다. 사람이 수갑을 찼을 때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해 무의식 신경이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몸 전체를 축과 스프링이 달린 진자운동체로 보면 무의식 신경은 축의 중심을 안정시키려는 기계인 셈이다.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인체는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 질병을 스본스도는 불균형이 생겨난 곳과 무의식 신경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생긴다고 본다. 그러면서 스본스도는 몸의 기초를 발, 그중에서도 엄지발가락으로 본다. 양쪽의 발바닥과 발가락이 좌우균형과 앞뒤로 수직을 이루게 하면서 뼈와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과 근육을 눌러 자극, 활성화하면서 치료한다.

스본스도의 장점은 치료자가 경험으로 터득한 손과 눈의 감각으로 불균형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병원에서 요구 하는 각종 고가의 장비와 검사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점이다. 근골격계 질환에 특히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인다.

이와 같이 KSNS를 찾아내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세연 교수는 2012년 유럽 과학 예술 아카데미에서 노벨 의학상 후보로 추천됐으며, 2019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에서 주임교수로 임명됐다.

KSNS가 독일, 러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인정받고 활기를 띠어가던 2020년 8월 김세연 교수는 독일 쾰른에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현재 그의 연구 성과로 건강이 좋아진 많은 사람들이 KSNS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독일과 러시아에서도 꾸준하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무의식 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나?

사람이 수갑을 차면 왜 달리지 못할까? 팔을 못 움직여서 그렇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두 팔을 움직여야 잘 걷고 뛸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오른발을 내디딜 때 왼팔을 움직여야 할까?

그것은 몸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걸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발의 근육과 신경은 몸의 반대쪽으로 연결돼 있다. 이 과정에서 버티는 힘을 만드는 엉덩이도 좌우로 흔들린다. 엉덩이를 중심으로 발의 내미는 힘을 발생시키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체가 비틀린다.

따라서 걸을 때 오른발을 내밀면 엉덩이와 상체는 왼쪽으로 비틀려야 한다. 그리고 척추의 맨 윗부분에 달려있는 머리 역시 왼쪽으로 비틀리게 된다. 이는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균형추의 움직임이 커서 다시 균형 잡는 힘이 많이 요구된다.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불사금 10억원과 1원 많지도 적지도 않네

건축비가 많이 오른 시기였던 2023년, 여러 신도들의 걱정과 근심 속에 새로운 법당을 짓고자 신축불사 모연을 시작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10년 동안 도심포교당을 운영하면서 겪은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긴 고민 끝에 용기를 낸 결정이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 시작한 불사라서 신도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 일이 있었다. 오랜 시간 함께 하셨던 신도들 중에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사에 보시 동참을 하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 것이다. 신도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운영하는 포교당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다. 보시를 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시기와 질투심으로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더욱 나를 힘들게 했다. 그때, 나는 사무량심(四無量心) 중 희무량심(喜無量心)에서 수희공덕(隨喜功德)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도들과의 법문의 시간을 가졌다.

"수희공덕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수행을 잘하거나 공덕 짓는 일을 하면 내가 성취한 것처럼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수희공덕이 중요한 이유는 남이 하는 일, 잘되는 일을 보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나의 일처럼 좋아하고 기뻐해주면 그것이 곧 나의 공덕이 된다는 점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남이 하는 착한 일을 보고 수희찬탄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바로 향기를 공유하는 것과 같아서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 주는 사람의 것이라고 수희찬탄의 공덕을 말씀하셨다. 보시하는 데는 3가지가 청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 하며 삼륜(三輪)이란 베푸는 자(施者)와 받는 자(受者)와 보시한 물건(施物)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깨끗할 때 비로소 참된 보시가 된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베풀어지는 시물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베풀고 받는 그 행위에 어떤 불순한 목적이나 상(相)에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는 자는 거만함이 없어야 하고 받는 자는 비굴함이 없어야 된다. 주었으되 준 것이 없고 받았으되 받은 것이 없는 그런 무위의 베품을 '삼륜공적(三輪空寂)'이라고 한다.

그렇게 "불사를 하는 데는 10억도 많지 않고 1원도 적지 않다"는 말로 법문을 마쳤다.

그 후 신도들은 물질적인 보시만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일일노동 보시, 권선 등을 실천하며 무사히 신축불사를 마쳤다. 지금도 열심히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힘을 보태 주시고 계신다. 보시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더욱 거룩한 보시일 것이며, 그 공덕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 스님
통도사 대전포교원
용수사 주지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⑥ 서산대사 휴정의 오도송

'역설'로 '문성오도'를 전하다

〈聞聲悟道〉

대낮의 닭 울음소리

머리털이 희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髮白非心白)
옛 사람은 일찍이 말했네(古人曾漏洩)
문득 대낮의 닭 울음소리 듣고(今聽一聲鷄)
대장부 할 일을 모두 마쳤네(丈夫能事畢)

홀연히 깨닫고 본래 내 집에 이르니(忽得自家底)
온 세상 사물이 그대로 진리의 세계로세(頭頭只此爾)
천언만어 팔만 금보장경이(萬千金寶藏)
원래는 하나의 빈 종이였네(元是一空紙)

서산 대사는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사서를 외우는 천재이나 10세에 조실부모한 고아였다. 시를 잘 짓는 신동이라는 소문이 나서 고을의 군수 이사증이 양아들을 삼아서, 한양으로 이주해 12세에 성균관에 특례 입학했다.

서산 대사는 27세에 지리산에서 참선 수행을 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남원 봉성마을을 지나가다 갑자기 정오 대낮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활연히 깨달음을 얻고 두 수의 오도송을 지었다.

보통 오도송은 한 수만 전하는데, 두 수의 오언절구가 그의 문집 〈청허당집〉에 전하고 있다. 전편의 시에서 '설(洩)'과 '필(畢)'을 운으로 하고, 후편의 시는 '이(爾)'와 '지(紙)'를 운으로 한 것이다. 두 편의 시를 하나의 오언율시로 보면 운이 맞지 않는다.

전편 시 "머리털이 희게 세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옛 사람은 일찍이 말했네"의 싯구는 인도의 불조 제3조 상나하수 존자가 제4조 우파국다 존자에게 한 법문을 용사(用事)하였다. 오도송이나 선시에는 경전이나 선사의 어록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경우가 있다. 그것은 깨달음의 내용과 표현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에서 깨달음의 공통된 내용은 '마음' '공' '중도' '중생즉불' 등이다.

대낮의 닭 울음, 선가의 돈오성 상징해
서산 대사, 선이 시로써 문학 되게 하고
시가 선으로써 사상과 깊이를 더하였다

닭은 새벽에 울어 어둠을 몰아내고 여명을 여는 전령사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대낮의 닭 울음소리는 선가의 돈오성(頓悟性)과 역설(逆說) 전환의 충격적 울림을 통한 깨달음을 준다. 서산 대사는 대나무 소리를 듣고 깨달은(擊竹悟道) 향엄 선사처럼 문성오도(聞聲悟道)했다.

마음의 본래 자리인 불성을 보면 견성성불이다. 일체가 마음이 만드는 일체유심조이고, 유심소현(唯心所現)이다. 번뇌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져 더 이상 배우고 닦을 것이 없는 무학위(無學位)인 아라한의 해탈 열반의 경지이다. 이것을 서산 대사는 출가 대장부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쳤다고 갈파했다.

후편 시는 홀연히 깨달아 나의 본래 마음의 집(자성 불성)에 돌아와 바라보니 이 세상이 그대로 부처의 정토요, 중생이 부처이다. 부처님이 설한 팔만대장경이 '깨달음을 이룬 중생의 마음' 하나를 기록한 것이니 "천언만어 팔만금보장경이 원래는 하나의 빈 종이였네"라고 읊었다.

그의 한시는 시의 운율과 대구(對句), 평측(平仄) 등에 있어도 유가 시인들의 격조에 뒤지지 않았다. 당송의 명시와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는 '등향로봉시' "만국의 도성은 개미집 같고, 천추의 호걸은 초파리 같구나"가 있다. 서애 유성룡은 선조대왕에게 이 시가 남아 대장부의 호연지기를 잘 드러낸 명품시라고 찬사하는 시평을 하였다.

한국문학사에서 서산 대사만큼 찬사를 받은 시승은 없다. 그의 선시는 선이 시로써 문학이 되고, 시가 선으로써 사상과 깊이를 더하였다. 조선 선시문학의 수평을 높였고, 조선 후기문학에 큰 영향을 줬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Remind' 문수 스님 가르침

5월 31일.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이날은 문수 스님이 낙동강 한 둑방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며 소신공양한 날이기도 하다. 14년 전 오늘, 스님은 무수한 살생을 멈추고자 준엄한 질책을 남기고 스스로를 불살랐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수질 개선, 가뭄·홍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을 정비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곳곳에서 반생명성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 터져 나왔다. 그래도 사업은 강행됐다. 수백대의 포크레인이 강을 파헤치고 뒤집었다. 그러는 동안 강에 의지해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이 스러져갔다.

문수 스님은 참담한 현실에 마음 아팠다. 무수한 생명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스님은 끝내 목숨을 내던져 호소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절박함과 간절함이었을 것이다.

스님의 간절한 염원도 4대강사업은 막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강은 독성을 내뿜는 '녹조라테'로 가득하고, 낙동강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존의 공간이 죽음의 강으로 전락해버린 셈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 처분하고,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예고했다. 보 재가동을 위한 사전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제2의 4대강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의 끔찍한 재현이다. 되살아난 금강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짓밟는 폭거"라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14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참혹한 죽음이 반복된다면, 이젠 우리의 목숨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상생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목숨을 바친 문수 스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내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지만 커지는 병원비에 '한숨'

네팔 이주민 무큰다씨, 뇌종양 아내 치료비 2억원
5년 이상 장기치료 필요…재발가능성 여전히 높아
빚만 4천만원, 통원치료비 300만원 감당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제사 문제 대안, 講度서 찾다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교수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제사는 인류의 오랜 유산이다. 농부는 풍작을 빌어 농경제를 지냈고, 비 오기를 염원하면서 기우제를 지냈다. 또 뱃사람은 선박의 무사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설렁탕'도 사실은 첫 쟁기질 후에 소를 잡아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마을 사람들과 한 그릇씩 나눠 먹던 것이 그 유래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부정하지는 않으셨던 듯하다. 대대로 제사에 소홀함이 없었던 밧지국 사람들을 칭찬하신 일이 〈장아함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유형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옳지 못한 일이라고 못 박으셨다. 첫째는 가축을 잡아 짐승의 피를 내어 귀신에게 비는 비윤리적인 제사다. 이런 제사는 털끝만큼도 이익이 없고 오히려 죄업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어서 잠시 자비심을 내는 것만 못하다고 따끔하게 법을 설하셨다. 둘째는 지혜롭지 못한 제사다. 예를 들어 상아(象牙)나 쇠뿔에 새긴 인감(印鑑)이 길상을 가져온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길상한 존재에 빌어 공덕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 소는 끈에 매여 채찍질을 견디면서 밭을 경작하거나 무거운 짐차를 끈다. 피로와 갈증, 굶주림이 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쇠뿔이 길상한 거라면,

부처님께서 제사 부정하진 않아도
가축 잡거나 어리석은 제사는 지적
본래 취지 벗어난 형식 돌아봐야

왜 그 뿔을 달고 사는 소는 정작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걸까? 말이 안 된다.

옛날에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 놓고 빌더라도 대충 떠낸 물이 아닌 정성스럽게 길어낸 물이어야 했다. 말 그대로 죄를 없애주고,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순수한 첫물이니만큼, 새벽 일찍 일어나 샘물을 긷는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리라. 보기에는 그냥 물 한 그릇이지만, 알고 보면 깊은 뜻이 있다. 밀교적으로 보면 월륜(月輪)을 담아내어 법신(法身)과 소통케 하는 금강살타(金剛薩埵)의 현신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다. 천 강에 물이 있으면 천 강에 달이 뜰 수 있다. 뭐든 믿음과 정성, 마음이 중요한 법이다.

제사를 꺼리는 지금의 추세는 제사 자체에 그 문제가 있다기보다,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형식에 얽매이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사의 어려움을 미리 내다보고, 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한 바 있다.

"옛날에는 이웃에 살아서 제사 지내기가 쉬웠지만 지금은 넓게 흩어져서 살아야 크게 살게 되니 각자가 사는 곳에서 강도(講度)하는 것이 크다. 봉건시대는 대소 친척이 한 동리에 살아서 잘되었고 산등성이 너머로 떨어져 살면 못되었다. 현시대는 각각 나눠 살아야 잘된다. 그러니 제사를 지낼 때라도 각각 그곳에서 강도를 하는 것이 조상도 복이 되고 자손도 복이 크다." (〈실행론〉 3-7-6)

*강도(講度)란… 강(講)은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하는 것을 말하며, 도(度)란 그 불공의 인연 공덕으로 동참한 사람들 모두가 해탈되고, 인연 있는 이들이 제도된다는 뜻으로 진각종에서만 고유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안전', 사회적 참사 해결책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아들의 장례식 날, 어머니는 고개 숙여 오열하다가 끝내 쓰러져 업혀 나갔다. 故 채수근 해병 영결식의 한 장면이다. 채 해병은 2023년 7월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그의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한다.

참사(慘事)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일' '참혹한 사건'이다. '참혹'이라는 말에는 '자인하고 무자비한'의 의미가 포함된다. '사회적 참사'라는 말은 재난의 원인이 개인의 잘못이나 불행이 아니며, 한 개인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의지와 합의를 담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사회적 문제이고 둘째, 국가가 무관심하고 무지하며 무능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권이 회피한다는 점이고 넷째는 피해자 권리 침해와 추가희생이 보인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 여섯째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기간 고통을 겪는다. 일곱째는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태원 참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안전사고 중 하나로 꼽힌다. 올 6월 2일,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반 만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체

개인의 심리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
정작 사회법은 신체만 신경쓰고 있어
마음의 온전함도 보호받아야 한다

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유가족들의 고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옛 선사는 해결되지 않고 얽힌 마음을 애응지물(碍膺之物)이라고 했다. 대혜 선사는 서장(書狀)에서 이것을 없애면 각(覺)이라고 했다. 정신과 의사 故 이동식 박사는 애응지물을 핵심 감정(Nuclear Feelings)으로 소개하며, 치료자는 내담자의 핵심감정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치료해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감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생각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배하는 중심 갈등이자 중심 감정이다.

감정은 외부를 향한 움직임(e+motion), 움직이는 에너지(Energy in motion)로서 생존 프로그램이다.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각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뇌가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문화나 환경 그리고 사회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하여 감정의 90퍼센트는 사회적 감정이다. 그러니 개인의 심리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고소할 수는 있어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고소할 수는 없다. 오늘날 사회법은 신체의 온전함을 보호할 뿐 마음의 온전함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감정은 항상 몸과 연결되어 있고 몸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감정은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다. 채 해병의 장례식 현장에서 군인들은 부동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주저앉았고 서 있던 병사 중 일부는 울기 시작했다. 채 해병의 어머니는 무자비한 정부를 대신해 아들 같은 동기를 부둥켜안고 토닥여주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이를 무시하면 대가가 따른다.

社 說

운주사 석불석탑, 세계유산 등재 기대한다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참 신비롭다. 10~16세기 조성된 다양한 석불과 석탑이 산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전해지길 천 개의 불상과 석탑이 있었다고 한다. 신비롭고 신기하기에 독일의 예술 평론가 힐트만은 "천불동은 나를 감동시킨다. 현대의 어떤 예술 작품도 그 만큼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다"고 운주사 천불천탑을 극찬했다.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에서 운주사 천불천탑은 민중해방의 미륵성지로 그려진다. 이렇듯 운주사 석불석탑군은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부터 종합학술용역을 진행해온 화순군은 올해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의 밑바탕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는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6월 20~21일에는 석불석탑군의 역사 문화적 가치는 물론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린다.

화순군은 오는 9월 국가유산청에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록목록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도선 국사가 창건한 신비의 도량 천불천탑 운주사가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는 도량이 되길 기대한다.

불교영적돌봄가협회 창립에 부쳐

불교호스피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회가 창립됐다. 불교영적돌봄가협회는 6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식을 개최하고 병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영역에서의 불교적 영적돌봄을 발전시키는 데 매진키로 결의했다.

협회가 창립한 것은 정부가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현행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에 더해 '영적 돌봄'의 제도화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지난 4월 심의·의결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기준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라는 명목 아래 올해부터 임종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 가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영적 돌봄 프로그램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도 추진하는데, 성직자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였던 영적 돌봄이 일반 호스피스 인력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는 셈이다.

그렇기에 불교영적돌봄가협회의 창립은 매우 시기적절하게 잘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대 협회장을 맡은 본각 스님은 "협회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영적 돌봄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호스피스 영역에서 이웃 종교보다 후발주자인 불교계가 협회 창립을 계기로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존자 28주기 추모다례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 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포교와 세계평화, 민족 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서경보 일붕존자의 제28주기 추모다례재를 불기2568(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음5월9일) 오전 10시 30분에 총본산 일붕선원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종도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1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6월 1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300만원

▶1차 9월 26일 출발~10월 5일 도착 (10일 일정)
▶2차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3차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4차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5차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6차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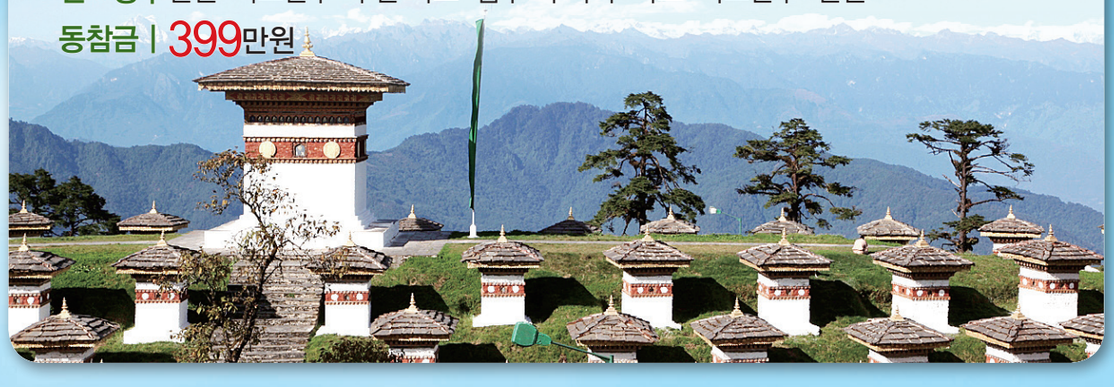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출발일: 9월 21일~28일(6박8일)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39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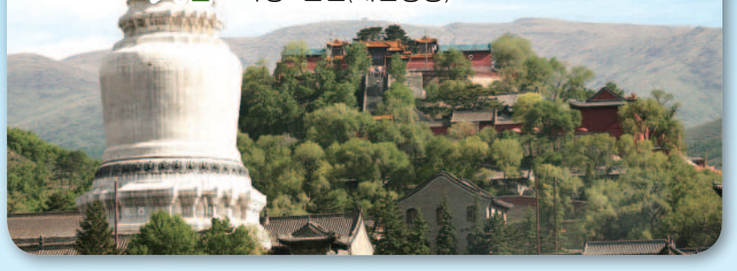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중국 3대석굴중에 하나인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도량인 오대산 성지순례입니다.

8월 21일 출발~25일 도착

동참금 | 159만원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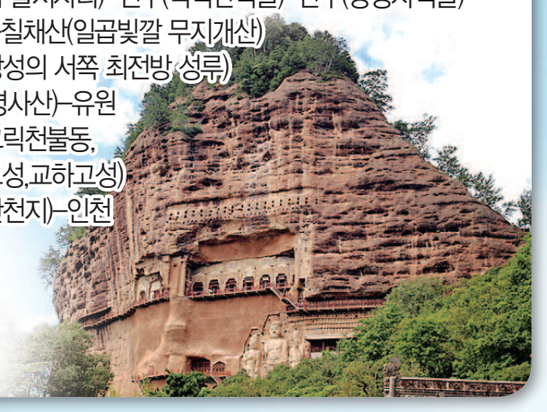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출발일정 : 9월 21일~ 9월 30일(9박10일)
10월 21일~10월 30일(9박10일)

동참금 | 34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
–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
–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
–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
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
–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발리 7일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는 보로부두르 대탑은 1,300여년전 인도네시아에서 불교가 찬란한 빛을 내던 시기에 조성된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부처님의 생애가 462개의 커다란 벽면에 상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또한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8월 26일 출발~9월 1일 도착(7일간)

동참금 | 259만원



티베트 성지순례 8일

영혼의 고향이라는 티베트,
그곳에서 불교의 깊이와 신심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일 : 8월 20일~27일

동참금 | 29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샤캬–시가체–체탕–삼예–인천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 모티브를 부여해준 신비로운 산으로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지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2차 7월 20일~8월 4일(16일간)
3차 8월 24일~9월 8일(16일간)

동참금 | 539만원

일 정 | 일정: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티베트 성지순례를 기록한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수미산)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